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후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3월 25일 (토) 제 162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나라 건설방법에 대한 '딴지' 걸기

Religion & Politics, 벳시 디보스 교육부장관의 정치적 견해를 종교적 전통에 국한시키는 오류 지적

벳시 디보스(Betsy DeVos). 트럼프 내각 지명자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로 지난 2월 초에 가까스로 인준 과정을 통과해 교육부 장관에 오른 여성이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52명, 민주당 의원이 48명인데, 그녀의 인준에 대해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고 여기에 이례적으로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동참하면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50표와 반대 50표를 받게 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의 마라톤 반대 연설에 들어갔고 표결은 다음 날로 연기돼, 결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51 대 50으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디보스 장관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다며 인준에 반대해왔다. 디보스는 공립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본 적이 없어서 미국의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교육에 대한 현장 지식이 없다는 것 또한 반대를 받아온 이유다.

그녀는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미국의 자립형 공립학교인 '차터 스쿨'을 옹호하면서 교육 민영화를 지지해왔다. 여기에 32만5천 명이 소속된 캘리포니아 교사연합회를 필두로, 각 주 현지 교사들이 디보스는 자격이 미달하며, 그녀는 가장 기본적 시민권인 공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육이 비즈니스가 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록 상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교사와 학부모 등 각계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이 포진한 미 언론은 이제 그녀의 신앙까지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언론은 어디까지 디보스 장관을 파고들어 비판할지, 앞으로 미 교육계를 4년 동안 맡아 지켜야하는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회복이 관건이 되고 있다.

디보스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인선되기 전부터 미국사회에 잘 알려진 소위 "금수저" 출신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수백억대의 부를 축적한 사업가로, 자선 사업가이면서 교육운동가다. 교육운동가지만 교육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다. 대신 그녀의 학부 전공인 경영학을 살려 주로 사업적 시각으로 교육에 접근해왔다. 언론은 그의 교육 사업가적인 측면이 트럼프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교육 개혁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벳시 디보스가 스피치하는 모습

트럼프와 디보스가 함께 추진할 교육 개혁을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학교의 기업화'와 '차등적 교육'이다. 두 사람 모두 부모의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중시하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전형적인 '소비자 대 기업' 관점으로 학생과 학교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많은 미 교육계에서는 기업적 논리로 교육 개혁을 일으킬 디보스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당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찾는 학교는 경쟁력이나 브랜드가 있는 학교 특히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사립학교를 찾게 돼,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원으로 꾸려나가는 공립학교가 도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녀의 교육 개혁과 인선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녀 인선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진보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언론들이 그녀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넘어, 그녀의 종교적 배경을 교육정책과 동일시 여겨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와 정치(Religion & Politics)'는 최근 "발전하는 하나님 나라: 칼빈주의, 칼빈대학, 그리고 벳시 디보스(Advancing God's Kingdom: Calvinism, Calvin College, and Betsy DeVos)"라는 글을 통해, 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준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디보스에 대한 중요한 사안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녀가 바로 개혁교회(CRC)의 교인이었고, 칼빈대학(Calvin College)에 다녔다는 점이다.

〈3면으로 계속〉

"설득을 통해 고래를 춤추게 한다!"

허팅턴포스트, 설득의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13가지 습관 소개

상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든 유치원생 아들에게 신발을 혼자 신으라고 지시하는 상황이든 설득력은 평생 필요한 중요한 도구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끄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무기는 호감도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게 만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정서가 본능적이라고 오해한다. 아주 잘 생긴, 사회성이 유별나게 좋은, 능력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배움으로 터득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내려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왜냐면 모든 게 소위 말하는 감정지수(EQ)에 달렸기 때문이다.

"허핑턴포스트"는 설득력이 월등하게 높은 사람들에게 있는 13가지 습관을 소개해준다(13 Habits Of Super Persuasive People).

1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TalentSmart)에 따르면, 설득력이 높은 사람들은 호감도만 높은 게 아니라 능력도 월등하다. 그래서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설득력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높은지 따져봤다. 아래는 설득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1.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전투에는 지더라도 전쟁에는 이긴다. 언제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언제 희생이 필요한지도 계산한다. 늘 배려를 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지한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편이 된다는 걸 안다. 성공이 늘 '옳은 것'보다 위라는 걸 안다.

2. 공격적이지 않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다. 공격적인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 안 있어 상대방이 도망치기 바쁘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또 자기 입장이 무조건 진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미미한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적으로 본다면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평온한 자세를 지향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너무 조르지도 말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훌륭하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설득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라. 그런 시간을 안 주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영영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3. 그렇다고 쥐처럼 조용하지는 않다.

반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질문 형식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제시해도 안 된다. 부끄러움이 많다면 아이디어의 중요한 부분만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라. "내 생각에" 또는 "가능하다면" 같은 전제어는 대화에서 제거하라.

4. 대상을 안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준비한다.

부끄러운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 부드럽게 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더 적극적인 어휘력을 쓴다.

5.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각적 요인이 부여된 것에 더 쉽게 설득된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시각적 도구를 활용한다. 그런 도구가 마땅치 않다며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게 설명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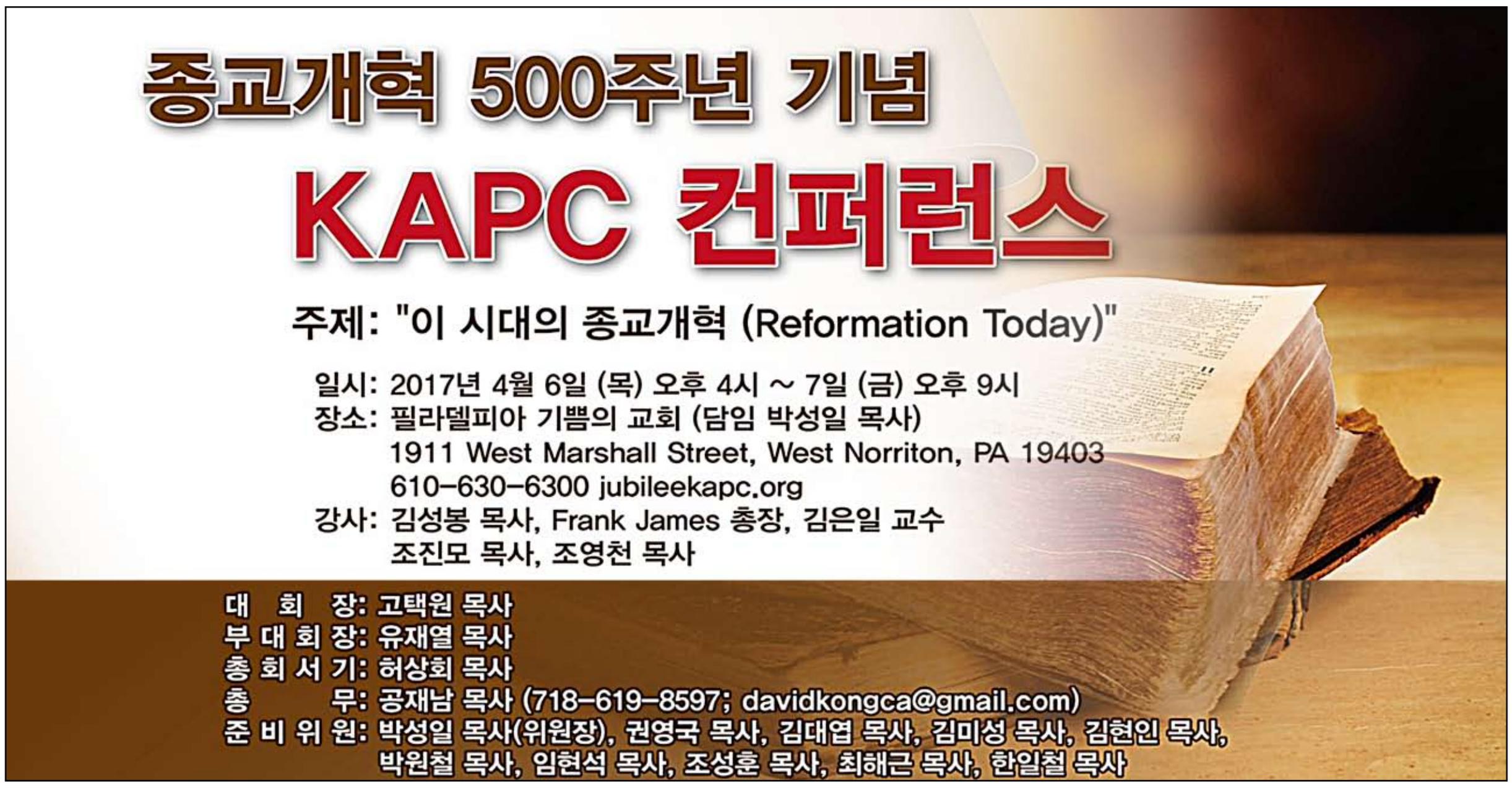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샬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시 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의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는 오창이라는 곡창지대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유방은 항우보다 군사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오창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힘을 쏟으려고 하였다. 그때 유방의 책사였던 역이기라는 사람이 오창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왕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입니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 이 말은 왕에게 있어서 밥은 하늘의 하늘(天之天)이라는 뜻이다. 즉 왕이 가장 중시해야 할 일은 백성의 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밥을 못 먹여주는 왕은 왕이 아니다. 백성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가 왕이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구호로 삼아서 당선되게 만든 말일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It's the Economy, Stupid!) 어딜 가나 경제가 문제다. 김일성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면 이밥에 고기국 먹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아들에 아들이 통치를 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다. 인류의 최후의 문제는 식량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우리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가장 최후적 문제는 밥 문제이다. 누가 백성을 굶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대부분의 하류층 사람들은 늘 허기진 삶을 살았다. 배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악한 왕 헤롯에 의해 참수당하는 기막힌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도 굶주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삶은 일상화되었던 것 같다. 하긴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 속에 식량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불과 50년이지 않는가. 마가는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다 배불리 먹고"(막6:42). 예수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게 하셨다. 게다가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길 정도였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빈들에서 굶주린 채 잠들어 긴긴밤을 지새워야 했을 사람들이었다. 벳새다 광야의 빈들 푸른 잔디에서 오십 명씩 백 명씩 둘러앉아서 배불리 먹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보다 더 즐겁고 풍요로운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복음서가 각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는 제자들의 사도적 책임을 강조한다.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단어로 제자의 신분이 소개된 것이 여기뿐이다(막6:30). 마가는 가장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한 마가는 이 문제의 해결방식에도 관심을 보인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 마가가 절절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적 책임과 순종 여부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만큼 무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서 쓰임 받게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

1955년 미국의 오레곤 포틀랜드의 한 농촌 마을의 마을회관에 이동식 극장이 설치되었다. 그날 밤 그곳에서는 6.25동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그 영화를 본 평범한 한 농부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여섯 자녀의 부모다. 하지만 한국전으로 인해 2백만 명이 죽고 고아가 굶주린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부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입양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밤이 깊도록 대화하고 기도한 부부는 입양하기를 결단하고 자기들의 땅 절반을 팔아서 한국의 고아 8명을 입양하였다. 이런 사연이 알려져서 동네에서 감동을 받은 이들이 4명의 한국 고아를 키우겠다고 나서서 1955년 10월 12명의 버려진 아기들이 미국 땅을 밟았다. 그렇게 시작된 입양운동이 점점 커졌다. 다시 자기들이 가진 나머지 땅의 절반을 팔아 입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다가 나머지 모든 땅을 팔아 한국의 경기도 일산에 들어와 입양전문기관을 세웠다.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회관이다. 남편 해리 홀트는 1964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매리엇 홀트 여사가 2000년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홀트 아동복지회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20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고아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였다.

한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떠안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작게라도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오늘도 갈릴리 벳새다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스도중심 모델'서 '교회중심 모델'로!

리더십저널, 빌 헐 목사가 제시하는 초대교회 모델 전환 이유 소개

제자들은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물리적으로 계신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 누가 리더로 이끌지, 몇 명을 리더로 세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파송할지,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고민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가 떠난 사실이 반갑지 않았지만, 달라진 상황에 맞게 그분의 가르침을 조정했다.

교회공동체를 통한 "제자훈련"의 대가, 빌 헐(Bill Hull) 목사는 이런 초대교회의 변화를 "그리스도중심 모델"에서 "교회중심 모델"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교회중심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해준다(The Disciple-Making Church).

제자삼기는 일회성 아닌 과정...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제자도
교회는 성숙한 제자 만들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수단 제공해야

1. 리더십 스타일을 전환하라

예수께서 오순절에 수천 명이 성령을 받는 일에 직면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넘어 사역을 확장시켜야 할 때, 예수는 어떻게 선교를 이끄셨을까? 새로운 임무를 위해 예수님은 그동안 해온 방식에 변화를 주셨을 것이다. 예수 앞에 세례 받은 제자 3천 명이 있다면, 예수님도 사도들과 거의 똑같이 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한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졌으나 승천하신 뒤에는 리더들이 권위를 공유했다. 그리스도중심 모델이 교사-학생 구조라면, 교회중심 모델은 리더들-회중 구조이다. 그리스도중심 모델이 헌신된 소수의 엘리트 일꾼을 세운다면, 교회중심 모델은 다양한 수준의 무수한 제자를 세운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제자 삼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회중에게는 리더십 팀이 있다. 그들은 같은 사람에게 훈련받고 같은 비전을 품었으며 하나의 기본 방식을 신뢰했다. 오늘의 교회에는 훌륭한 팀 리더십이 드물다. 리더십에 필요한 좋은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는 특정한 집단이 되도록 훈련하셨다. 그리스도중심에서 교회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리더 한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헌신된 십자가 군사들을 리드하는 것에서 '리더십 팀'이 다차원적인 회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2. 인도의 방식이 바뀌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어느 제자도 그 명령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것은 공동체의 몫이 됐다. 그분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요13-16장)고 말씀하셨다. 또 자신과 같은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다(요14:26; 16:13). 우리에게도 예수 대신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글로 된 말씀이 있다. 우리는 예수와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는 없지만, 기도 가운데 대화할 수 있다.

3.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사역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돕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사가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발휘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인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

교회에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 다양한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위기 상황에 처했고, 일부는 패배했으며, 일부는 훈련받을 준비가 됐거나 리더가 될 준비가 됐다. 제자교회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병원, 새로운 신자들이 성장하는 온실, 열심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소다.

목회자의 임무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제자 삼는 목회자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해야 한다.

4. 팀으로 아웃리치 하라

예수가 하셨던 전도를 생각하면 니고데모, 우물가 여인, 젊은 부자와의 만남이 연상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후 5:18~20).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벧전3:15). 그러나 교회중심 모델에서 핵심은 `공유`다. 리더십, 권위, 하나님의 인도, 훈련 모두 공유된다. 물론 전도도 함께 한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오는 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말로 전도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요13:34-35).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헌신한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 가게 해주신다(행2:46-47).

〈8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하나님나라 건설방법에 대한 '딴지' 걸기

〈1면에서 계속〉

뉴스위크지(Newsweek)의 알렉산더 나자리안(Alexander Nazaryan)에 따르면(BETSY DEVOS IS COMING FOR YOUR PUBLIC SCHOOLS), "미국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디보스가 앞으로 펼칠 일들은 바로 '예수'의 대리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약 4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그녀의 출신 학교를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도했다.

마더존스지(Mother Jones)의 크리스티나 리즈가(Kristina Rizga)의 글을 보면(BETSY DEVOS WANTS TO USE AMERICA'S SCHOOLS TO BUILD "GOD'S KINGDOM"), "서부 미시간 주의 네덜란드계 이민자 역사에 대한 분명한 공부 없이 디보스와 프린스 일가(그녀의 남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CRC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계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디보스가 2001년에 했던 인터뷰의 내용이 반대세력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때 디보스는,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Our desire is to advance God's kingdom)"라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입국제한을 엄격히 시행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수용하겠다는 공권력을 실행시키며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신정정치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오해는 한편으론 당연해 보인다.

2001년에 언급된 발언은 여러 곳에서 경고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데, 뉴스위크는 그 문구를 기사의 부제로 사용했고, 마더존스도 글의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베시 디보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학교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CRC나 칼빈대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발전시키라"라는 개념은 신정주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우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은 섬김 중심적인 비전과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칼빈대학의 학생들은 섬김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배우되 그 섬김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 또한 안다. 예를 들면 칼빈대학의 학생들은 인종의 화합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주기적으로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종간의 화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정의와 돌봄이다. 미국의 플린트 시와 같이 깨끗한 수도시설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향상된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여러 다양하고 격렬한 논쟁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이런 사안들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여러 기독교의 교파들이 모두 사용하는 주기도문에 항상 나오듯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있겠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매일 같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처럼 디보스의 발언은 유별난 것도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보도된 뉴스기사들을 보면, 디보스의 정책을 CRC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야로 종교적 전통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짚고 갈 사안은 베시 디보스는 더 이상 CRC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50년간 그 일원으로서 살아왔고 칼빈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이자 대형교회인 마스힐성경교회(Mars Hill Bible Church)의 성도다.

다른 대형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힐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집중하는 교회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비 칼빈주의적인 신학적 주장이 디보스의 정책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더 일리가 있다. 디보스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녀 또한 자유의지와 기업의 자유행위가 깊이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시 디보스의 경우 1840년대의 네덜란드 이민자들에게서 종교적 영향을 찾는 것보다는 20세기 중반 미국에 등장한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경제 시장체제 안에서 몸집이 커진 기업의 자유행위에서 찾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리고 디보스가 그녀의 칼빈주의 뿌리에서 취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회참여라는 가치일 것이다. 또한 칼빈주의가 아닌 보수적 복음주의 문화에서 취한 부분은 사회참여의 방법론일 것이다. 즉, 경쟁과 기업의 자유 행위를 통한 사회 참여다.

결론으로, 진보주의적 언론인들은 그녀의 정치적 견해를 오로지 종교에만 기인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신앙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다. 여러 신념과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과 행위가 관련돼 있으며 세속적 인생과 문화에도 꾸준히 영향을 받는다. 세속성과 종교성은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생각보다 꽤 공통적인 영역이 있다.

언론들이 그들이 미지했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연구하는 성실함에는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만약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싶다면 대중들의 우려에 확신을 주는 방향에 치우쳐진 연구와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근거들을 수집하고 싶은 유혹과 편리성에서 멀어지기 어렵긴 하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 종교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나의 적을 절대 악으로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언론의 할 일은 독자들의 편견에 섣부른 동의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바른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미국이 2개 당파로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시점에서 언론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설득을 통해 고래를 춤추게 한다!"

〈1면에서 계속〉

그림으로 남은 좋은 스토리는 잊기 어렵다.

6.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사용한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세, 행동, 제스처, 목소리 등이 사람들과의 소통에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적극적인 목소리, 팔짱을 끼지 않은 자세, 눈을 맞추는 행동, 경청하는 모습 등이 다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의 참여를 이끌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준다. 설득력 관련해선 무얼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7. 늘 웃는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바디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 한다.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기 바라면 대화 중에 웃도록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고 동시에 기분이 좋아진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이 많이 웃는 이유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전염성이 높은 성향이다.

8.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매우 설득력 높은 대화법 중의 하나가 상대방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마음이 열린, 조정 능력이 높은 당신을 의미한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안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소통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네요" 같은 말로 알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를 강요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상대방은 갖게 된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관점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다 인정한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9. 좋은 질문을 한다.

대화 중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놓치는 거다.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에 경청하는 건 물론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 궁금해한다. 몇 개의 적절한 질문이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지, 당신은 놀랄 것이다.

10. 이름을 부른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다.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에 넣는다. 이름은 인사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6면으로 계속〉

〈3면에서 계속〉

11. 연대(관계)를 맺는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 후에야 상대방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다. 한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무 설명 없이 학생들에게 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보라고 했는데 55%가 성공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배경을 공유한 후 같은 과제를 냈더니 90%가 합의에 성공했다. 즉,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대외활동 이야기(상)

대외활동의 원칙

대외활동이나 연합사업에 참여하면서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1)광역목회다

교단 일이나 연합사업에 참여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대외활동을 빌미로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교회를 제쳐 둔 채 교단 사무실이나 연합기관을 할 일 없이 드나들고 맴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목회보다 교회 밖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통합교단의 경우 100주년기념관 안에 총회장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총회장 재임기간 단 한 번도 그 방을 사용한 일이 없다. 회의를 주재하거나 외빈을 맞아야 할 때만 총회 본부를 출입했다.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나왔다.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고, 교단이나 연합기구도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正治)라야 한다. 사심이나 공명심이 작용하는 것은 금기다. 지방색을 앞세운다든지 자기네 조직의 저변변화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2)섬김이다

서 있던 자리, 앉아 있던 자리 그리고 떠난 자리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교단이나 연합기구의 재정을 축내는 것도 잘못이다. 필자의 경우 은퇴하는 날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이나 연합사업체의 공금을 사용(私用)하는 일이 없다. 총회장 재임 기간 출장비나 판공비를 쓴 일이 없고 연합기관의 수장 재임기간 역시 돈을 쓰지 않았다. 총회장에게 할당된 출장비, 여행비, 판공비는 모았다가 총회 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지금도 몇 군데 법인 책임을 맡고 있지만 신용카드나 판공비를 쓰지 않는다.

이유는 '섬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잡식을 즐기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 그리고 시시한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목회도, 대외활동 참여도 철저하게 섬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3)인화(人和)가 중요하다

화(和)가 깨지면 소통이 막히고 연합이 무너진다. 목숨 걸고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연합을 이루지는 못한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패거리 정치로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그런 아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표류하는가 하면 지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가정도, 교회도, 연합기구도 인화가 정착하면 성장과 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

4)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한다

대의(大義)를 위해 소의(小義)를 내려놓고, 대사(大事)를 위해 소사(小事)는 물러서야 한다. 반대로 작은 득실 때문에 큰 것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我生教會死 我死教會生)는 족자에 새겨진 글귀를 늘 바라본다. 교회와 연합을 위해서라면 물러서고 내려놓는 용단이 필요하다.

5)목회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평소 필자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총회장도, 연합사업도 목회 다음이라는 전제 아래 사역을 수행했다. 총회장 재임 기간 동안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활용하지 않았다. 주일 강단을 지켰고, 새벽기도회를 인도했다. 회의차 해외를 나갔더라도 주일이면 돌아와 설교를 했다. 제아무리 연합사업이나 그 직임이 화려하고 소중해도 목회 다음 순위에 자리를 두었다.

총회장 1년 임기가 끝난 후 모 신문사와의 대담이 있었다. 대담 말미에 기자가 "총회장 임기가 끝나고 어떤 목사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대답은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였다. 필자와 동역했던 부교역자들은 오히려 "총회장 임기 동안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iamcspark@hanmail.net

2017년 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www.buc.edu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ESL I-20/ Certificate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TRACS ABHE BPPE NCCAA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해택

목회서신

이렇게 승리하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오래전에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한 존 매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석유 재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한번은 그가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사서 600 피트까지 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빚을 지고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치 않고 용기를 얻어 다시 돈을 더 빌려서 630 피트를 파내려 갔습니다. 그래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이젠 다 말렸습니다. 주위에선 그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이 몰려와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죽은 목숨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일어서서 10피트를 더 파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춤추며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12,000배럴이 쏟아져 나오는 대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존 매칼이 주위 사람의 만류에 그만 중단했더라면 이 대유전은 어쩌면 영원히 발견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낙심치 않고 도전 하는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는데 11만 번 실험을 한 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엔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낙심이란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방망이에 성경에 나오는 신,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한 번씩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을 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초지일관, 변치 않고 달려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개교기념일이 되면 전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이 시작되면 모두가 교문을 달려 나갈 때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모두가 일등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반 코스가 지나면 선두그룹이 만들어지고, 중간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뒤에 처진 학생들 가운데는 아예 포기하고 만두집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문에 들어서는 일등과 선두그룹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일등을 한 제 친구 이의로에게 어떻게 일등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보폭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순례자 된 성도들은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일, 낙심된 일들이 많아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메시야의 고난
(마태복음 27:27-44)

'타성'(惰性:force of habit)이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이같은 타성은 크리스천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주님의 수난에 대한 감동까지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탈리아의 성직자로 잘 알려진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 Saint)의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아씨시의 근방의 들길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사람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니?"라고 묻자, 그는 눈물을 닦으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울고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갈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심한 그의 결연(結緣:resolute)한 신앙자세는 그로 하여금 일생을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로 역사에 길이 남게 한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길이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나르드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굳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세계적인 설교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도 그의 임종시에 "나는 이제 신학을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은 국민성,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 모두가 우리를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2017년도에도 '고난주간'을 기하여 특별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교회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시 한 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도 인류 구속의 대역사를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 밤이 맞도록 더욱 더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눅22:39-46). 그러므로 처참한 십자가상의 죽으심도 복종으로 일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Lord)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2:5-11).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들의 압력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이 확정되었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로마 군병들로부터 받으신 희롱, 한때 이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퍼붓는 조롱과 비방,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희롱.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욕하는 등 최악의 수치와 고통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앞에 또다시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와 감사의 두 손을 모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새로운 다짐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메시야의 고난은 수치와 모욕, 능욕과 조롱, 그리고 멸시와 천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사53장)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려고 당하신 벌거벗김의 수치와 모욕,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케 하여 구원하시려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당하신 능욕과 조롱, 채찍에 맞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고, 왕의 홀을 대신하여 갈대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도로 빼앗아 그 갈대로 때리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가혹하고도 야만적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통치자이심을 확증시켜주신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5,6) 아멘.

2. 메시야의 고난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요, 인류 구원 성취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죄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 피는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골1:20),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看過:remission)하셨으며(롬3:25),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롬6:6).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단번에 자유하게 하셨습니다(갈3:13). 이처럼 죄와 사단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Amazing Grace!'를 불러 영광과 찬양을 올립시다.

3. 메시야의 고난은 승리와 영광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현세의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메시야 고난의 진의(眞意:the true meaning)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야의 십자가 고난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엡2:18,19).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죄악의 세력을 이기셨고, 불의와 불법을 이기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와, 최고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선포였습니다. 비록 인간에 의한 십자가였으나 부활 승천의 승리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주를 위한 고난과 수고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b).

일평생을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서 온갖 환난 속에서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 역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부활절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순절기간으로 지키는 엄숙한 기간입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야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작은 마음으로 보다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된 생활과 거룩한 삶으로 승화(昇華:sublimation)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영광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네 가지 생각

-하나님의 주권, 사필귀정, 후회, 교만

장례식을 가보면 고인에 대한 인연에 따라 남다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슬픔이 있어도 한편 지나는 생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다행스런 마음이다. 저렇게 슬퍼하는 유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돌아가는 것이 마땅히 정상적일 것이다. 고인을 추억하는 자리에 참석한 유족외의 사람들도 결국은 잊으며 살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며칠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되고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다. 탄핵 후의 이런 저런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도 일단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몇 달 동안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파국의 비정을 느끼게 할 만큼 소용돌이쳤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이제는 신속하게 다음 단계를 향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본다. 불과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염려했던 큰 일없이 생존의 목적을 위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달음박질에 바쁜 발걸음들만을 보게 된다.

참으로 비통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음이 결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죽고 못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죽은 후에는 묻어두고 산을 내려와야지, 영원히 그 옆에 초막 짓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산 사람은 살아야하지 않을까? 아마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에도 찬반으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을 향해 자비를 들여 집회에 열심냈던 이들도 탄식과 환호를 교차하며 침착하게 삶에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본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애써 다시 뭔가를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밤낮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했던 일들의 소회를 나누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판단에 자유로울 수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에, 네 가지 화두로 제한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1987년 국민적인 열망과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선거에서 양 김씨의 분열로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열혈학생이던 필자에게 하신 담임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 '되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더 지나는 즈음에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표방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시대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 그러나 무지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되어진 일에 대해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다.

탄핵의 찬반양론에 대한 판단 주체의 잘잘못을 떠나 되어진 일은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판단의 옳고 그름의 진실도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분히 해석이 되리라 본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세운 판관들이 언론의 일방적인 의도 속에 미성숙한 판단을 했다면 그로 인한 해악은 고스란히 공동체의 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반대의 경우를 통해 성숙함을 드러낸 일이었다면 그로 인한 복의 누림도 역시 공동체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인 것 같아도, 그 승리의 진실에 대한 참과 거짓이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세운 판관들의 옳음에 의한 참되고 진실한 국민의 승리였는가? 그렇다면 그 복은 온 국민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만일에 그러한 결정에 오류가 있었고, 사사로운 술수들의 승리였는가? 그렇다면 그 해악조차도 승리라고 주장했던 그들도 피할 수 없는 모두의 해로움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앞에서 그 결론의 열매를 맛보면서 성숙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가봇'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할 따름이다. 일의 결과에 대해 누구도 그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다.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할 따름이다.

2. 사필귀정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갖는 가혹함 때문에 조금은 달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바르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만사를 주장하심에 전혀 오류가 없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모든 엉키고설킨 문제는 반드시 정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편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한국의 언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과할지라도 바름에 대한 언론의 자세는 꽤나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설과 가정에 의한 것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는, 이후에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타부타가 없다. 함께 더불어 동조하며 입방아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책임에 대해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하고서는 사실처럼 보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다수 대중은 작게 보이는 앞의 전제(前提)를 생략한 채 뒷부분을 가지고서 흥분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전과 다른 언론의 호황 탓에 대통령은 다른 전직(前職)들의 잘못에 비해 과하게 취급된 면이 많이 있었음을 본다. 사생활과 같은 내용들, 막말과 협박으로 인격의 민낯을 드러내는 국회의원들, 자신의 유익을 따라 배신과 배반을 밥먹듯 하는 잡배들 등등을 보면서 당사자로서 느끼는 답답함도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 신적존재는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 그의 리더십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야 했던 것이다. 리더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 그중에 우선은 권한이다. 리더는 그 권한의 온전한 사용으로 국민과 더불어 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혹은 그것이 잘못되거나 미리 보완점검 확인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해악의 문제들도 고스란히 리더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답답해할 이유가 없다.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답답할 따름이다.

3. 후회

세 번째로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 이제는 집권여당도 나뉘어졌지만 그 중심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특히 대통령 자신의 마음에는 아마도 후회의 피눈물이 흘렀을 것이라 여겨진다. 세월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아마도 생명을 포기하고픈 유혹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다. 어쩜 살아있는 것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회는 후회일 따름이다. 그 자체가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후회를 이기는 길도 있다. 그것은 후회하는 만큼 현실에 대해 후회에 합당한 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그것이 세월을 이기게 된다. 후회는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후회의 마음만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공적위치의 유무를 떠나 개인 스스로가 자강(自强)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 후회 속에서 삶을 마음대로 기투(旣投)하지 않아도 될 넉넉한 강단(剛斷)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리더로서 감당치 못한 일들에 대해 피눈물이 흐를 만큼 후회의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더라도 후회 속에 머물거나 자신을 내어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외려 더욱 자신의 후회만큼 책임을 받아들임으로 마지막까지 핑계 원망 한숨과 탄식이 아닌, 잠시 동안이라도 백성들이 사랑했던 지도자였음을 기억하게 함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정말 억울하신가? 그렇다면 더욱 담담히 받아들이고 시간을 인내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밝히 드러날 날이, 드러내실 날이 오기 때문이다.

4. 교만

마지막으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시간차이는 있을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현실에 실현되는 힘과 능력으로 작용한다. 불과 한해 전만 하여도 집요하게 편가르기를 하고 정적들을 고사시켜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수는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할까에 대해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이유는 이미 가진 권력에 대한 자신감과 교만 때문이 아니었던가? 결국 선거의 실패와 그 구원(舊怨)이 표면화되어 배신의 정치가 나타나고 어느 누구 하나 붙들어주지 못하는 극단적인 실패의 길로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든다. 성경말씀 그대로이다. 안타깝지만 진리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조국 대한민국의 되어진 일에 대해 네가 화두를 가지고 제한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보았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후회는 늘 뼈저린 고통에 다름 아니다. 고집스런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의 소망은 역시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기대하는 것이다. 새벽을 깨우는 일천만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각지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좋게 선히 인도해 가시리라! 아멘.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구약시대와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주일성수(계명의 정신 정의) 지키는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전후로 선교비나 교회 사역 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주일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구역모임이나 선교회, 교사모임 등으로 일반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식사 등을 함께 하며 모임을 갖는 것이 바른지요? -오렌지카운티 부유해

A: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주의 명령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 뜻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노동 후 쉼(Resting), 즉 안식의 의미로 한주간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약의 주일 개념은 구속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주일은 첫날로서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힘(Strength)으로 6일간을 승리하며 산다는 개념입니다. 각 교단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해석이 다릅니다.

주일 성수에는 김승곤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인상에 남습니다. " 주일 개념은 두 가지 청교도적인 주일개념과 개혁주의적인 주일 개념이 있다. 청교도적인 주일 개념의 쉼은 주일에 식당이나 마켓 등 일체 삼가고 일을 하지 않는 다분히 율법적인 주일 개념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주일

예수 안에 참된 쉼은 개혁주의적 주일성수 개념
그러나 일부러 식당이나 마켓에 가는 것 피해야

개념은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 안에 참된 쉼과 죄에서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규례나 형식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해야 할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성수 개념이 너무 해이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성수문제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자유의 문제이기는 하나 성도로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교인들이 선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가지는 것은 자유이지만 솔직히 덕스럽거나 은혜롭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에는 우리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남에게는 주일에도 열심히 일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결과를 낳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비나 교회 사역 활동비를 마련키 위해 주일에 생활용품 바자회를 하는 것은 역시 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나 덕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일에는 은혜받는 예배나 성경공부에 전념해야지, 바자회를 통해 돈을 주고받고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시장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즉 금요예배 후나 토요일 오후에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장로교 신학자인 고 박윤선 목사는 3가지를 지적하며 주일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자녀가 현재 아파 죽어가는 데도 병원에 안 간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둘째,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차를 타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부득이 한 일,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오는데 그만 깜빡 잊고 개스를 주 중에 넣지 않아 개스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개스를 넣어야 합니다. 주 중에 얼마든지 마켓에 가서 주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도 주일오후에는 교회 마치고 가는 길에 마켓에 가는 것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주일은 딴 날과 구별되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데이튼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 이상)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한국어, 영어)

제출 서류: 이력서(한국어, 영어 각 1부, 가족 사진 포함)
본인 소개서(가족 포함)
목회계획서
목사 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신학대학원)
최근 설교 2편(CD 혹은 동영상)
2인 이상의 추천서(이름, 전화번호, 자필 싸인)

제출 기간: 2017년 4월 20일

제 출 처: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0425 Dayton Lebanon Pike Centerville, OH 45458
Email: skkimfamily@hotmail.com

-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비밀 보장)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코히스타니(Kohistani)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 강과 판즈코라 강의 상류 강변에 살고 있다. 또 그들은 인더스 강과 지류의 동부 연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강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코히스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계곡, 가장 긴 빙벽 몇이 있다.

영국인들은 1895년경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지만, 19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이 나라를 떠났다. 하지만 푸쉬툰족(파탄족)이 그들의 땅을 사들이거나 폭력으로 축출함으로써 오랫동안 코히스타니족을 지배해왔다.

오늘날 코히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코히스탄니족의 하위 부족들이기도 한 몇 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다. 그들에는 투르발리족, 바테리족, 갈로족, 라즈코티족, 또 코히스타니족 그 자신도 포함된다. 이 부족들은 몇 개의 특징적인 다르딕 방언을 말하지만 그들이 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파쉬토어로서, 이것은 지배적인 푸쉬툰족의 언어다. 코히스타니족은 강건하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용감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이다.

삶의 모습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인더스 강 지류가 형성한 협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서 관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더스 강은 바위가 많은 가파른 협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그곳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거나 목양업자들이다. 경사진 밭에다 곡물을 심으며 밭을 갈기 위해 황소가 사용된다. 강우량은 매우 적고, 따라서 작물은 "쿨"(kuhls)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 관개를 하며, 이것은 지속적이고 숙련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쿨에 의해 관개를 하는 지역에서 코히스타니인들은 보리와 밀, 수수, 기장, 쌀을 경작하고 감자와 다른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한다. 그들은 단지 1년작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젖소와 염소 떼를 몰고 "이동방목(transhumant)"을 한다. 여름에는 영구 거주촌을 떠나 소, 염소, 양떼를 몰고 고산 목초지로 이동한다.

주변의 산악지형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코히스타니족을 격리되게 했다. 대부분의 정착지들은 소규모 독립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1,000-4,500미터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가족들은 대개 보다 높은 지역의 너덧 군데에 집을 가지고 있다. 단지 겨울에만 그들은 강 언저리의 단란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

코히스타니의 마을들은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농부들 외에도 마을에는 보통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이 있으며, 이들어 파쉬토어를 쓰는 2개 언어 사용자들이다. 또 소작농들과 농업 임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코히스타니족은 일반적으로 족내혼을 하며, 가부장적 사회로서 자손의 계열이 남성을 통해 이어진다. 다른 많은 이슬람 종족들의 관습과는 달리 여자들은 격리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농사일을 돕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더스 강 계곡을 따라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코히스타니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 사회의 주류권에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남부의 푸쉬툰인들이 유입되도록 고무하고 있기도 하다. 코히스타니족은 푸쉬툰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방정부의 관료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인더스의 코히스타니족이 자신들의 행정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코히스탄 주를 만들었다.

신앙

수백년 전, 북부 파키스탄 지역은 주로 불교권이었다. 이후 힌두교가 들어섰지만 서기 1000년경에 이슬람 신앙이 이 지역에 들어왔다. 당시 코히스타니인들은 다신교적인 아리아인의 신앙에서 수니파 정통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슬람 이전의 전통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일부 지역에 남아있다. 일부 부족들은 무속신앙(샤머니즘)을 지키고 있으며, 신들과 악마, 정령, 조상신과 같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술사에 의지해 마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신령과 접신하며 의식들을 주재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 기독교에 문을 닫고 있으며, 그곳에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코히스타니 부족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며, 라즈코티족, 갈로족, 투르발리족 가운데 알려진 성도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프리카의 북한' 에리트레아 기독교 박해 심각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30여명이 풍성한 찬양과 말씀잔치에 참가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공동대표 에릭 폴리·현숙 폴리)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에디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지역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개최한 '에리트레아 교회지도자 신앙 및 양육 훈련'에서다. 이들은 한국순교자의소리 스태프와 함께 영어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에 흠뻑 젖었다.

에릭 폴리 목사는 "가방이 없어 비닐봉지에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진다"며 "하지만 아무리 에리트레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핍박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식사와 교제를 함께하면서 자국의 민속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난민생활의 설움을 달랬다. 주최 측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절절한 신앙생활 이야기를 전하자,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에리트레아는 30년 넘게 전쟁을 벌인 끝에 1993년 독립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정권을 잡은 독립투사 출신 대통령은 북한 독재정권을 모델삼아 집집마다 자신의 사진을 걸게 했다.

종교탄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2년 정교회와 루터교, 가톨릭을 제외한 모든 복음주의 교회에 대해 주일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버하니 아스멜라시 목사는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 수가 한때 3000명이 넘었다"며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폐쇄당하며 은행에 돈을 압류 당하는 등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 그래서 모든 복음주의 교회는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한다"고 전했다.

허가를 받은 교회들도 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있다. 에리트레아 정교회 수장은 교회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다 12년째 가택연금 상태다. 에리트레아 감옥은 화물 컨테이너, 구덩이, 군(軍) 막사 등 형태가 다양하다. 또 고문까지 자행되고 있다. 에리트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480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속한다.

아스멜라시 목사는 2003년 '릴리스 에리트레아' 단체를 설립, 탈출 난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에리트레아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며 "지하교회가 계속 늘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감옥에서 증오가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마약보다 강한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한 걸까.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을 감소시킨 원인이 스마트폰 사용일 수 있다는 가설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대체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10대 청소년의 마약 투약이 꾸준히 줄어든 지난 10년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의 폭발적 증가 시기와 겹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대중화되고 합성 마약이 흔해졌음에도 특히 고교생 마약 사범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현상을 놓고 이 둘의 상관관계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상호작용 가능한 미디어'가 마약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덧붙였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노라 볼코우 소장은 NYT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동안 문자 그대로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흥분상태가 된다"면서 스마트폰이 감각추구와 의존성 등 마약을 투약했을 때와 비슷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IDA는 오는 4월 중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 고교생과 대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연례조사인 '모니터링 더 퓨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상급생들의 마약류 투약률이 지난 40년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는데, 고교 졸업반(12학년) 학생들조차도 마리화나를 제외한 엑스터시와 코카인, 크랙 등 다른 합성 마약류 투약을 멀리했다. 마리화나는 미국 여러 주에서 술·담배와 마찬가지로 의료·오락용으로 용인된 상황이다.

전 세계 가장 빨리 확장하는 종교는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세계 종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CNN 방송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장하는 종교로,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나 지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2050년에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21세기 말에는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가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2010년부터 2050년까지 각 종교의 성장률은 이슬람교가 73%, 기독교 35%, 힌두교 34%였다.

이슬람교의 성장세가 빠른 것은 이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슬람교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3.1명이다. 반면 비 이슬람교도 여성의 출산율은 2.3명이다.

이와 함께 이슬람 인구의 평균 연령은 비 이슬람 인구보다 7년 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인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시각을 9.11테러 직후인 2002년과 현재를 비교한 결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긍정적으로 변해 대조를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종교 차별을 막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단됐다.

이라크 '모술 엑소더스'에 "피란민 구호 한계점 도달"

이라크 주재 유엔사무소(UNAMI)는 16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라크 모술 피란민을 구호·지원하는 자원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UNAMI의 리제 그랑드 이라크주재 유엔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은 이날 화상전화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모술 피란민의 수가 예상보다 더 많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5만명이 탈출한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이를 받아낼 수 없다"며 "모술 서부에 잔류한 주민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상수도와 식량 공급이 불안해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군은 지난달 19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근거지인 모술 서부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거세지는 이라크군의 압박에 IS도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모술 서부 도심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16일 모술 서부 탈환 작전이 개시된 이후 약 한 달간 15만명이 이곳을 빠져나왔고 이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정부와 구호단체가 마련한 피란민 임시 캠프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술 서부엔 아직 민간인 60여만명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랑드 조정관은 "모술 서부의 주민들은 남아도 위험하고 탈출해도 위험한 진퇴양난의 처지"라면서 "ISIL(IS가 국가수립을 선포하기 전 이름)이 모술을 사수하기 위해 탈출하는 주민을 죽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님이 여자로 등장...기독영화 '오두막' 논란

2007년 출간돼 전 세계 46개국에서 200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 영화로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에서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최근 개봉한 '오두막'은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가장 흥행한 기독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오두막은 스튜어트 하젤딘이 감독하고 샘 웨딩턴이 주연을 맡았다.

'오두막'은 막내딸을 유괴 살해당하고 비탄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로부터 딸이 살해된 오두막으로 오라는 초대를 받는다. '파파'라는 이름의 여성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남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상처를 치유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파파는 흑인 여배우 옥타비아 스펜서가 연기했다.

영화를 본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보다 포괄적으로 묘사하든지 혼성적으로 그리든지 성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저술가 토니 레인케는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수십 곳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레인케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비록 잉태나 양육 등의 여성 이미지가 하나님의 행동이나 성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왕, 숙녀, 어머니, 딸 등 여성적인 호칭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의 원작인 소설 '오두막'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49주 연속 1위, 워싱턴포스트 55주 연속 베스트셀러,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2008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Top 100으로 선정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화는 미국 2888개의 극장에서 1610만 달러를 벌어 들였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20일 개봉이 확정됐다.

트럼프 "김정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김정은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풀기자단에게 주말에 북한 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김정은에 대해 위와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비난한 바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쓰이는 신형엔진의 연소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실험을 '3.18혁명'으로 불러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날 실험이 이뤄졌음을 나타냈다. 김정은은 또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ICBM 발사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무정부주의자 '불의 음모단' 공포

앞으로 유럽 각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의 테러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 그리스 경찰이 아테네 인근 우편물 분류 센터에서 우편 소포에 담긴 폭탄 8개를 발견해 해체했다. 소포들은 유럽 각국의 유럽연합(EU) 재무담당 부서와 기업체들이 수취인이었고, 발송자로는 그리스 경제 당국과 학술 기구 등이 가짜로 적혀 있었다.

지난 15일 독일 베를린 재무부 청사와 16일 국제통화기금(IMF) 파리사무소에서 연달아 우편물 폭탄 소동이 발생한 데 이어 유사한 방식의 테러 시도가 적발되자 유럽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그리스 당국은 그리스 극좌파 무정부단체 '불의 음모단(Conspiracy of Fire Nuclei)'이 배후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우편물 폭탄도 IMF에 배송된 폭발물과 비슷한 구조였다.

불의 음모단은 2008년 고급 자동차 판매점과 은행을 방화해 처음으로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그리스 재정 위기로 조성된 대중의 분노를 정당성 삼아 정부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해 왔다. 단체 이름대로 증오의 대상에 불을 질러왔던 이들은 2009년부터 폭탄 공격으로 테러 방식을 바꾼 뒤 활동을 강화해 150차례 이상 테러 공격을 벌였다.

불의 음모단은 특히 2010년 그리스가 EU와 IMF가 주축이 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 고통스러운 긴축을 강요받자 아테네 주재 외국 대사관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당시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지도자들에게 차례로 폭탄 소포를 발송해 악명을 떨쳤다. 당시 그리스 경찰은 6명의 핵심 대원을 체포했다.

미 정부의 테러 단체 지정 이후 2011년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던 불의 음모단은 2013년 6월 그리스의 한 교도소장의 자동차에 폭탄을 터트려 탑승자를 다치게 했고, 2015년 5월에는 50여명의 대원이 집권당 시리자의 당사를 점거한 뒤 수감 대원 석방과 중범죄자 감옥 폐쇄를 요구하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

12. 진실하다.

진정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설득력이 높다.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람 곁으로 모인다. 상대방의 진심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이 간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자기의 정체를 편하게 수용한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독창성을 추구할 때 더 멋지고 흥미로운, 설득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13. 지나치지 않는다.

성급한 건 설득력의 적이다. 당신의 견해를 너무 강요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처음 가졌던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연구에 나타났다. 당신의 조급함 대비 상대방은 자기의 이익을 따진다. 특히 당신의 입장이 견고할 때는 약간 양보하는 태도가 좋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소화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3. 박승준(1884/5-1969)

박승준(朴丞)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1885년 5월 30일에 태어났다고 하고 1884년 5월 28일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그가 하와이 감리교 목회자였던 최진태의 처남임으로 한국에서 감리교 교인이었거나 아니면 성공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강화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도릭 선박에 승선하여 1904년 5월 6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21세의 총각이다.

한인 평신도 사역자

박승준은 하와이성공회가 1863년에 세운 이올라니 학교에 입학했다. 이올라니는 하와이 언어로 ' 하늘의 독수리'라는 뜻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사40:31)의 말씀대로 그의 믿음은 남달라 이올라니 학교의 재정 후원자였던 그리스도성공회 D.D. 윌레이스 사제의 제의를 받고 코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성공회 사역을 보조한다. 윌레이스 사제는 박승준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목회 지역인 코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하여 18개월 간 예배를 집례하였다. 이들 한인들은 25년간 토지를 임대하여 채소와 커피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윌레이스 사제는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승준은 이올라니 학교를 졸업하던 1911년 여름까지 코나 사역을 감당했다.

1908년 박승준은 학교에 다니면서 호놀룰루 시내의 여러 교회와 시외 와이마날로 지역의 한인들을 섬겼다.

이올라니 학교를 졸업한 1911년 가을부터 28세의 박승준이 하와이 성공회로부터 한인 평신도 사역자로 임명받고 성 엘리자베스성공회 윌리암 E. 포트와인 사제를 돕는다. 1910년 현재 4,533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거주했고, 이 중 남자는 3,931명이었으며 여자는 602명이었다. 한국어 예배는 매주 오전 9시 반에 있었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으며, 매달 셋째 주일 오후에 기도회를 설치하였으며, 금요일 저녁에는 부인과 소녀를 나누어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였고, 주일 오후 2시에는 남자 성경공부반을 열었다. 연령별로 젊은 부인회와 장년부인회를 조직하였다. 국어학교를 개설하였는데 4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했고, 야간에 성인 영어공부반을 운영했다.

존 S. 박 신부

성 엘리자베스 성당

하와이 국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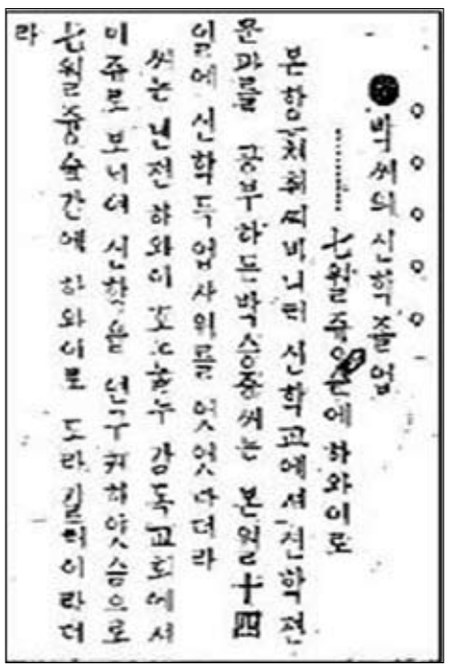
1909년 2월 재미 한인이 조국광복을 목적으로 국민회를 창립했다. 하와이에서는 휴업하고 한인 주택마다 태극기를 달았으며, 각 농장과 관청에서 이 날을 한인의 기념일로 인정하여 하와이 총독의 동포가 호놀룰루에 모여 경축했다. 1913년 5월 하와이 국민회가 법인설립을 할 때 박승준은 정칠래, 박원걸, 박용만, 홍인표와 함께 법인헌장에 서명하였다.

사제

1909년 90여 명의 한인 회중이 성 엘리자베스 성당 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어 예배를 이해할 수 없어 많은 한인이 참석치 못함으로 한국어 예배를 인도하고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제를 선정해 줄 것과 한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청한 5년이 되던 1914년 9월 하와이 주교 레스태릭 주교의 추천으로 박승준은 샌프란시스코성공회신학교에 입학했다. 본 신학교를 졸업한 박승준은 호놀룰루성공회의 사제 후보생이 되었다. 1916년 6월 14일 박승준은 레스태릭 주교의 요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교구의 니콜스 주교로부터 부제로 안수를 받았다. 그는 미국성공회의 최초 한국인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1914년 박승준은 상항에 거주하는 남자 50명, 10명 이상의 부인과 7명의 자녀를 방문했다. 그들은 성공회 교인이었으나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는 3년간 공부하던 기간 이들과 교리공부를 했을 수도 있다.

존 박으로도 불린 박승준은 1916년 7월 하와이 성엘리자베스 성공회 한인 회중을 위한 신부로 부임했다. 부임 예배에서 레스태릭 주교는 신부가 부족한 가운데 어렵게 신앙을 지켜온 한인들을 치하하고 박 신부의 사역을 통하여 영적 삶이 깊어지고 매일의 삶에 성장이 있기를 기대했다. 박승준 신부는 이듬해 6월 3일에 성안드레 성당에서 하와이 교구의 레스태릭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고 사제가 되었다.



신한민보, 1916,6.22

성누가 선교회

1917년 부활절에 성엘리자베스 성공회 한인 회중은 '성누가선교회'라는 명칭을 받는데 기도처와 같은 미조직 교회였다. 71명의 등록 영성체자가 있었고, 40여명의 어린이가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20여명이 젊은 부인회에 소속되었고, 30여명이 장년부인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60여명의 어린이가 한글학교에서 공부했다.

1917년 7월에 성안드레성당 부인회의 후원으로 3천불을 들여 건물을 구입하고, E.C. 페리 부인이 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남녀 성인을 위한 '야간학교'와 부인과 어린이를 위한 '오후반'을 운영하였다. '매일학교'는 성 엘리자베스 성공회의 부속 건물에서 약 100명이 등록한 가운데 운영했다. 박승준은 1918년 2월까지 2년간 사제로서 성누가선교회에서 사역했다.

성누가선교회 지부

박승준은 최 존이 섬기던 하와이 섬 코할라 지역과 자신이 섬겼던 코나 지역의 한인 회중도 섬겼다. 코나 지역은 감리교 교인들이 목회자가 없어 근처 성공회 교회에 다녔을 때 박승준이 순회전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승준은 이와 농장에서 매주 예배를 인도했다. 이와 농장에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고 1917년 부활절에 성누가선교회 지부가 이와 농장에 조직된다. 이 날 48명의 한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와 한인 성공회 선교회는 '부인성경반'을 개설하고, '한국학교'를 열어 60여명의 남녀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웠으며, 1920년에는 '야간학교'가 문을 열어 남녀 성인들이 영어를 학습했다.

항일투쟁

1917년 3월에 국민회 하와이 총회의 구제원으로 선임되면서 성공회 사제인 박승준이 항일투쟁에 발을 내디딘다. 이듬해 12월 박승준은 사제직을 사임한다. 1921년 4월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을 조직할 때 그는 상무원으로 피택되었고, 그 해 6월 호놀룰루 한인상업회를 결성할 때 총무가 된다. 1935년 1월 박승준은 하와이 국민회의 팔라마 대의원이었는데, 다음달 2월에는 외교를 맡았다. 그는 군자금과 독립금, 군사운동금 등 항일투쟁에 필요한 재정 후원에 최선을 다했다.

감리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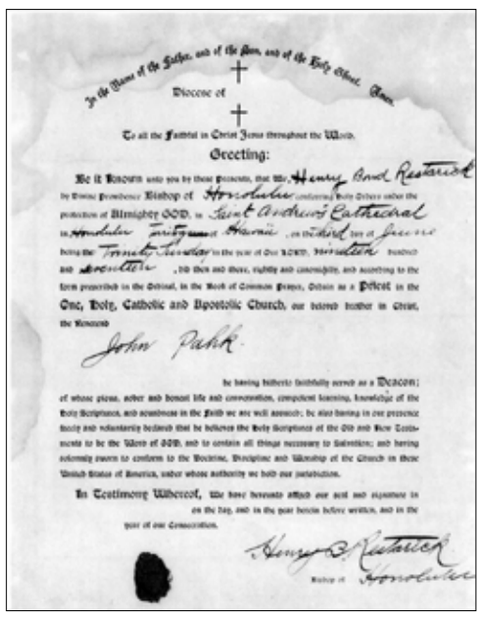
박승준은 39세였던 1920년 2월 12일에 메리 김과 결혼하여 슬하에 요엘과 아이삭 그리고 대니 등 세 아들을 두었다. 1922년에는 상품판촉원으로 일했는데 1923년에는 카후쿠 한인감리교회 목사가 되고 있다. 1924년 본 교회에 황사용이 부임하기 전까지 길어도 1년간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활동하던 박승준은 1969년 4월 19일에 향년 88세로 하와이에서 소천했다.

damien.soh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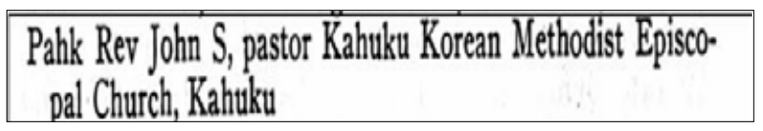
1904년 도미, 하와이성공회 설립 이올라니학교 입학, 평신도 사역
1914년 샌프란시스코성공회신학교 입학, 미성공회 첫 한국인 신부
1917년 사제 사직...항일투쟁 지원, 감리교목사, 부동산중개업 활동

에는 성만찬식이 있었다.

박승준의 지도로 1912년 10월에 15명이 견진 성사를 받았고, 20명이 세례를 받았다. 1913년 사순절 주일에 30여명의 회중이 38불을 헌금하여 하와이 교구 지도부는 박승준과 한인 회중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이 액수는 majoringworth.com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85불에서 17,300불에 해당한다. 박승준의 1년 6개월의 사역기간 동안 60여명이 견진 성사를 받았고, 주일 예배 참석 회중은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35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했다는 보고가 있다.



존 박 사제 임명장



1922년 호놀룰루 주소록

이외에도 박승준은 주일 오전과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천여 명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청교도 신앙 (28)

청교도들의 예배(1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9. 예배 회복을 바라며 마치는 글

교회 회복의 중심에 예배 회복이 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에 가장 적합한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1)이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공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공교회가 정한 주일 예배는 규정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경건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신학교 훈련이나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아니한 예배 인도자가 단순한 음악적 소양과 열정만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성도들은 집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2)예배의 생명력은 예배 순서의 배열보다 그 순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내려오기 위해 목사와 회중의 철저하고 최선을 다하는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3)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일관성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의 부름이나 성경 읽기나 성시교독, 찬송가가의 가사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찬양대의 찬양과 목사의 설교와 연계된다면 더욱 합당하고 좋은 일이다.

4)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감격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예배 인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인도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통일된 지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5)예배 순서 중에서 찬양, 기도, 헌금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것은 성경읽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이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설교자는 결코 웃음거리나 흥밋거리나 쓸데없는 예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배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참예배가 되려면,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충만한 예배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성경적 원리가 온전히 회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와 목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는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6)무엇보다 공적인 예배를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예배에 관해서 적합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며,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요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공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성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8)그러므로 예배자들은 공예배를 위해 실제로 준비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영적 상태로 나오거나 마음이 주께 고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영혼의 결핍을 아뢰며 회개함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9)참된 예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듯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히12:28,29)라는 음성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도 온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태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온 힘을 다하여 몸과 영혼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찾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즐거이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 속에서 한없이 기뻐하는 참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교회 회복 중심에 예배 회복 있어...성경 가르침에 따라야
온 몸과 영혼 다해 하나님 경외하며 기뻐하는 예배자 돼야

'그리스도중심 모델' 서 '교회중심 모델' 로!

〈2면에서 계속〉

교회는 팀으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 세상에 나가는 데 필요한 은사와 자원을 잘 동원한 팀이라야 한다. 훈련된 제자들 사이의 연합, 부드러운 사랑의 은사, 명확한 언어의 은사, 결단력 있는 리더십의 은사에 성령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결국 열쇠는 함께하는 협력일 수밖에 없다.

5. 목회적 돌봄도 공유하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목자 중 우두머리로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예수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중심 모델은 누군가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한 사람에게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교회중심 모델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역할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나눠 맡는다. 몸에 속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각 지체를 통해 몸의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을 택하셨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께 격려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함께 기도해준다. 내가 병이 들어 아프면, 성경공부 친구 두 명이 따뜻한 음식을 들고 찾아온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신다.

사역의 분산이라는 요구에는 목회의 분산도 포함된다. 교회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긍휼, 도움, 나눔, 조언, 격려를 표현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인 사역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결론으로, 제자 삼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과정이다. 시스템이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 제자도에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한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 사역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수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책임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 삼기는 예수같이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환경에 기초한 팀워크를 통해서 성취된다.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삶의 공감

삶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공감을 한껏 느끼면 사람은 신선한 에너지가 몸을 장악하게 되고 가슴이 채워지고 머리가 비워지고 쓴 뿌리들이 빠져나가서 좀 더 본연의 존재에 가까운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도 지지리 쫓아다니던 병마도 어쩌면 저절로 달아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삶이 그렇게 서로를 살려내고 살려내야 하는데 말이다.

사람은 말을 섞으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고 마음의 간격을 좁혀간다. 그래서 누군가와 수다를 즐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일 게다. 그렇게 말수가 많아지면 점점 꾸미거나 감추는 일 없이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되리라. 그렇다. 서로 마음 안에서 마음을 제대로 보면 말이 통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욕망이 빠져나가 그야말로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진리인 채로 가슴에 와 닿아 그렇게도 누리고 싶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생각보다 더욱 더 분명한 실체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가짜 자기들, 즉 내 생각 내 감정 버릇 상처 지식 직업 집안 이름 학력 등 지금껏 '나'라고 행세를 해온 가짜 '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짜 '나'인 영과 접촉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렇다. 오늘도 주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듯 그렇게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 주님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벌써 일어난 일, 그리고 다 지나간 일에 급급하여 성취감 뿌듯함 실망 아픔 속에 빠져 사느라, 주님의 마음도 내 이웃의 맘도 아니 내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버겁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성경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도구 내지는 장비가 있고 도울 힘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우리에게 장비와 힘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옷과 환한 웃음 뒤에 감추어진 드러낼 수 없는 힘든 삶의 아픔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닐까. 상대의 상처와 삶을 공감해주어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힘듬을 사랑이란 고리로 엮어서 감싸 앉을 수 있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힘이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 생각과 욕망과 바램들로 꽉 찬 마음차원에선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신을 만나 내 삶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는 오직 믿음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리라. 그럴 때 누가 묻지 않아도 올라오는 물음들과 함께, 바쁜 틈과 틈 사이에서도 차 한 잔을 동반한 말씀묵상이 얼마나 꽉 찬 영혼으로 배부르게 하는지, 얼마나 기존의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게 하는지... 정작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리라.

그렇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란 사실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사람일 게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 하리라. 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며 날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은 '삶의 공감'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력개발의 시작이리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리움들이 공감 받고, 공감 받으면 우린 다시 두 다리를 굳게 딛고 일어서며 또 다시 살아나리라. 아이처럼....

아,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changsamo1020@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강사: 라흥채 목사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횃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도서 주문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토요칼럼

공감(共感)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공감은 객관적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촛불과 태극기에 생명을 걸 듯 매달린다.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공감토록 한다면 지지율이 오르고 정치적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따라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인간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있다. 종교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첫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은 의외로 많다. 사람이 숨을 쉬는 산소,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랑, 느끼는 감정, 신앙의 대상인 신(神)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종교적인 영역인 신을 제외하면 산소나 사랑, 감정 등은 보이지 않아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신에 대한 신앙에는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필요와 기대에 따라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신앙하는 까닭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아이러니가 이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 기획하고 그것을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 뒤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정상적인 이지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뒤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규정할 만큼 어리석다. 어찌하여 사람의 모습도 아닌 짐승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는지 그 심리를 알 수는 없으나 그래야 인간의 마음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란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영적인 상태 즉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보이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맹점이며 불행인 것이다.

둘째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포복(怖伏)은 인간이 취할 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익히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처럼 된다는 실현 불가능한 유혹에 현혹되어 선악과를 따서 먹은 존재다. 그러니 인간의 속성에는 완전하거나 온전한 순복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은 종교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신이 태생하였다. 자기만족과 위안의 수단으로 만든 것이 곧 종교며 신인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과 교감한 부류(部類)다. 기독교가 이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도 공감의 폭과 깊이에 따라 구교와 신교로 나뉘고 신교에도 많은 교파가 파생하였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으로 갈라져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이되 신앙의 방법과 교회법 등은 나뉘어 있다.

다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공감이다. 공감하는 유유상종(類類相從)에 따라 종교가 달라지고 교파도 갈린다. 이렇게 나뉜 종교와 교파는 어느 정도 고착(固着)되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신앙의 대상과 방법도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는 공감하는 대상을 찾아 포교(布教)에 매진하고 있다.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도 비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공감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세상과 소통하여 공감을 이뤄내지 않고는 발전과 부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정체되어 있는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감된 기독교인들 간에도 성도의 의무와 권리가 따름을 교육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참석이 아닌 참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참석은 종교도 신안도 아니다. 기독교인도 불교의 어떤 의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이슬람도 기독교의 어떤 의식에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참석하는 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공감이 필요한 것은 참여토록하기 위해서다. 교제의 대상은 같은 기독교인일 수 있다.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교의 대상은 비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마침내 공감을 이끌어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다. 구속의 유비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남자 혹은 여자, 중국인 혹은 아랍인, 청소년 혹은 장년에 따라 구속의 유비를 마련하여 접근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감토록 하는 모든 과정이 선교 또는 전도라면 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이 좋은 기술을 바로 익혀 그것으로 무지를 일깨워 공감하는 것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맡은 자의 사명임과 동시에 의무가 된다.

hanmac@cmi153.org

2017 미주한인교회 교단 총회일정

2017년 미주 한인교회총회가 3월 27일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를 시작으로 6월 12일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까지 일제히 열린다. 다음은 총회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날짜	교 단	장 소	문 의
3/27-30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NY〉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Hotel de Point	(714)683-1411
4/17-20	하나님의성회 한미총회	〈NJ〉갈릴리교회(박성식 목사)	(910) 977-3575
	C&MA	〈IL〉시카고휄로십교회(김형균 목사)	(201)440-5700, 5701
4/17-21	미주성결교회	〈CA〉연합선교교회(이상복 목사)	(818)985-0121, 618-3338
4/24-27	UMC	〈CA〉Hilton LA Airport, LA 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310)645-3699
4/25-28	NCKPC	〈한국〉Grand Ambassador Seoul	(305)389-4589
5/9-11	KPCA	〈멕시코〉Crown Paradise Club Cancun	(410)236-8939
5/16-19	KAPC	〈AK〉The Hotel Alyeska	(779)899-7508
6/9-15	CRC	〈IL〉Trinity Christian College	(213)271-7345
6/12-15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AZ〉아리조나 그랜드 리조트호텔	(972)221-8026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유언서 설명회가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열렸다

죽음준비교육...사전의료지시서 포함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유언서 설명회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소망유언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망유언서를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작성해 놓으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놓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설명회는 김미혜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소망소사이어티 봉사자 및 일반 시니어들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죽음 준비 교육과 더불어 참석자들이 직접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 실제로 작성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소망유언서 작성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KAPC 동남아노회 2017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선한 청지기가 되자" 강사 허상회 목사

KAPC 동남아노회 2017 목사장로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동남아노회(노회장 전대구 목사) 주최 2017 목사장로기도회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에 있는 수빅한인연합교회(담임 조성일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는 총회서기 허상회 목사(뉴저지 성도교회 담임)가 맡았다.

15일 저녁 개회예배는 허상회 목사(총회서기)가 말씀을 전했으며("칭찬받는 사람들", 행6:1-7), 16일 새벽집회는 준비위원장 정형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17).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허상회 목사가 "선한 청지기가 되자"(벧전4:7-11, 왕하2:1-14)는 주제로 인도했다.

저녁집회는 노회장 전대구 목사가 "세계와 함께"(사60: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 노회 교회를 위해(인도자 김우철 목사) △41회 총회를 위해(권영구 목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안상근 목사) △미국교회를 위해(김관형 목사) △동남아노회와 필리핀 나라를 위해(이관희 목사) 제목으로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동남아노회〉

세기총 5차 정기총회 이틀째인 21일 오전 회무처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기총 신임대표회장에 황의춘 목사

20-22일 제5차 총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5차 총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제로 열려 신임 대표회장에 황의춘 목사(트렌톤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20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 개회예배에는 한국 17명, 미국 21명, 일본 3명, 기타 지역 15명과 지역 목회자들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는 황의춘 목사(수석상임회장) 인도로, 기도 최낙신 목사(상임회장), 성경봉독 김종택 목사(부회장), 설교 김요셉 목사(직전 대표회장), 찬송 뉴욕장로성가단, 축도 장석진 목사(증경대표회장), 광고 신광수 목사(사무총장)와 이재덕 목사(총괄 본부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교권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질타하는 설교를 했다.

21일 오전부터는 정기총회가 진행돼 △정관개정 △대표회장 선출 △법인 이사장 및 후원 이사장 추대 △임원 및 상임위원장 인준 △법인이사 선임 △제5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감사와 회계보고 △사업보고 등의 안건을 다뤘다.

감사패 증정(최낙신, 정서영, 김태성, 유영식, 김종택 목사)이 있었으며 운영위원(공천)회 발표에 이어 임원선출과 대표회장 인준이 있었으며 법인이사장 및 후원이사장 추대, 신구임원 교체로 진행됐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수석상임회장 정서영 목사 △서기 박광철 목사 △부서기 김연규 목사 △회계 유득상 장로 △감사 김춘규 장로, 나득환 장로, 공인회계사 1명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후원이사장 전기현 장로.

오후에는 제5회 총회선언문 발표로 공식적인 정기총회 일정을 마치고 고시영 목사의 인문학 강의, 선교포럼 등이 진행됐으며 22일에는 총회에 참석한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1일 뉴욕관광이 진행됐다.

2013년 서울에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함께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적인 과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교회일치와 연합을 제일의 목표로 설립된 세기총은 2016년 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에 송일현, 이동석, 장석진, 최길학, 최낙신, 하효련, 김바울, 박용, 황의춘 목사 등 9인을 법인이사로 추천했다.

〈유원정 기자〉

KAPC가미노회가 주관한 천성덕 목사 성역50주년기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모범과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KAPC가미노회, 천성덕 목사 성역50주년기념 감사예배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원로목사이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 공로목사로, 한국교회와 미주, 캐나다 한인교회의 부흥운동을 진력해온 천성덕 목사가 성역 5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가미노회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밴쿠버 빌라델비아장로교회에서 제 36회 봄 정기노회를 마치고 노회 산하 목회자들과 및 밴쿠버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역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오영석 목사(밴쿠버 성산교회, 가미노회 노회장)의 사회로 김상훈 목사(북미선교교회)의 대표기도 후 유재일 목사(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KAPC부총회장)가 디모데후서 4 장 9-18절을 본문으로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심영택 목사(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전 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축하 시간에는 가미노회에서 준비한 성역 50주년 기념패 전달식과 서부 캐나다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이 있었으며, 남상국 목사(밴쿠버 소망교회 원로)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축가 순서에는 소프라노 이지현 집사의 독창과 40여명의 서부 캐나다 총신동문회 목회자 부부의 합창순서가 있었다.

답사에서 천성덕 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성도들과 그동안 함께 동역하며 묵묵히 후원해준 이경주 사모와 두 자녀인 은혜, 삼열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한다"고 말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천성덕 목사는 이날 성역 50주년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한 여러 후배 목회자들에게 50년을 충성되게 달려온 모범과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 마나과 1기 수료

두란노아버지학교 미주본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Managua)에서 니카라과 현지인 아버지 90명을 대상으로 마나과 1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니카라과 현지인 교회인 호산나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연합하자"라는 구호가 아버지학교 운동 정신과 일치함에 현지에서 선교하는 정진모 선교사(어바인 온누리교회 파송)부부의 요청으로 2017년 1월부터 계획된 현지인 마나과 1기를 실시했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기 마나과 아버지학교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오는 7월과 10월에 제2기와 제3기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자원봉사자가 돼 다음 기수를 섬기는 전통에 따라, 제3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면 수료자들이 봉사자가 돼 북쪽으로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파나마, 동쪽으로는 카리브해 지역인 쿠바·하이티·도니미카공화국으로 진출해 중미 지역 현지인 가정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 본부 마나과 1기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버지학교 미주본부는 니카라과에서 2017년에 3기까지 개설한 뒤 2018년부터는 말씀으로 훈련된 니카라과 봉사자들을 통하여 북쪽으로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로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쪽인 카리브해 지역인 쿠바와 하이티, 도니미카공화국으로 진출함으로 2020년까지 중미 지역에 아버지학교를 통한 현지인 가정 회복 운동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에서는 아버지학교 운동이 선교적 도구로 남미 지역에 사용됨에 감사드리며 꾸준히 기도하기는 미국내 한인 교회들이 아버지학교 컨텐츠를 이용해 아버지학교 미주 본부팀과 남미 지역에서의 연합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다.

〈기사제공: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퀸즈장로교회 여선교회 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여선교회 수련회가 4월 11일(화)과 12일(수) 저녁 8시부터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풍삼 목사(한인동산교회 담임).

▲문의: (718)886-4040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데이튼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김수광 목사)가 담임목사 은퇴로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M.Div. 이상),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며,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목회경험이 있고(부목사 포함),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중 언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이력서(한영 각1부, 가족사진 포함), 본인소개서(가족 포함), 목회계획서, 목사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대학, 신학대학원), 최근 설교 2편(CD 혹은 동영상), 2인 이상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제출기간은 4월 20일.

▲문의: (937)901-5222 skkimfamily@hotmail.com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창립예배 및 연주회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회장 김해은, 고문이사 이길호 목사, 김동석 이사장) 창립예배 및 연주회가 4월 30일(주) 오후 5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New York Christian Performing Arts Foundation)는 전문 클래식 연주자 그룹 Newklang Ensemble(단장 강수희), 어린이 국악선교단 Delight Youth Missionaries(단장 김수라), 뉴욕어린이기독합창단 New York Christian Children's Choir(단장 안혜영, 지휘 박미용)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다.

▲문의: (516)487-7223

목회자, 사모 회복사역 리더십 수련회

낮은울타리 미주본부가 주최하는 "교회와 가정의 회복사역을 위한 목회자, 사모 회복사역 리더십 수련회"가 4월 2일(주) 오후 6시부터 4일(화) 오전 10시까지 뉴저지 라마나욧기도원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목회자, 사모, 선교사이며 참가비는 숙식 교재비 포함 100달러(당일 등록 130달러). 등록마감은 3월 30일까지.

▲문의: (636)300-4790

아이티 구호팀 참가자를 모집

핼핑핸드미션네트워크(대표 조항석 목사)가 아이티 구호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정은 7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5박6일이며 미션장소는 아이티 포토프린스 인근 10개 고아원. 참가인원은 17명(어른참가자 7명, 고등학생 참가자 10명 예정). 신청 마감은 4월 8일로 이메일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된다. 항공료 700달러(예상)+참가비 500달러=총 1,200달러. 학생참가자는 악기를 다루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참가신청서(첨부양식), 지난 학년 및 현재 학년 성적증명서, 학교 선생님 또는 출석교회 목사님 추천서, 에세이(제목: 내가 꿈꾸는 세상, 한영 중 선택)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은 4월 8일이며 신청비 150달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의: chohenry02@gmail.com

퀸즈성인대학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21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시작됐다. 봄 학기는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경건예배를 드린 후 건강박수, 스마트폰, 생활영어, 수지침, 뜨게교실, 미술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사진은 개강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KAPC 필라델피아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일한대로..." 김경열 목사 설교

뉴욕장로연합회 제47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47차 조찬기도회가 3월 17일 오전 8시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렸다. 미동부지방과 뉴욕에 밀어 닥친 눈폭풍후, 거리에 얼어붙은 눈사태속에서

기도회는 김주열 장로 사회로 송정훈 장로 기도 후 김경열 목사가 "일한대로 갚으리라"(계22: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정덕상 장로) △사순절을 맞이하여(박성범 장로) △뉴욕영안교회를 축복하소서(황규복 장로)라는 제목으로 통성기도가 있은 후 손성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의 헌금 특송에 이어 우화선 장로의 헌금기도,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말, 사회자의 광고 후 김경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영안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4월 본회의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도세미나: 4월 21일(금) 오전 8시 조찬기도회 후 세미나 및 노방전도(민재기 장로) △친교등산(김주열 장로, 배상규 장로) △다민족선교대회 준비모임(황규복 장로).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고 승리하라"

KAPC 뉴욕노회 정기노회, 새 노회장 허윤준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황경일 목사) 제80회 정기노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열렸다.

신임 노회장 허윤준 목사는 "노회원들과 섬기는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공천부를 거쳐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허윤준 목사 △부노회장 문종은 목사 △서기 이종원 목사 △부서기 임병순 목사 △회록서기 임영건 목사 △부회록서기 이윤석 목사 △회계 김수산 장로 △부회계 송경동 장로.

회무처리는 헌의 청원문서 접수 보고로 △퀸즈장로교회 최진식, 이숙규, 첸위지 목사후보생 허락 청원 △김대진 전도사(예수부활교회 담임) 목사안수 청원 △박병섭 전도사 목사안수 및 주비전교회 부목사 청빙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 김재형, 김도현, 장훈, 오인수 부목사 계속 청빙 허락 청원 △주비전교회 서옥석 목사와 예사랑교회 윤영환 부목사 계속 청빙 청원 등을 다뤘다.

뉴욕동노회가 제안한 뉴욕일원 5개 노회통합 건은 공문을 받지 못함으로 노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경일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순 목사, 성경봉독 정인수 목사, 설교 허윤준 목사, 성찬예식 이규본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광고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 목사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11:1-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민목회현장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 그러나 기쁨으로 넉넉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첫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고 승리하라 둘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허 목사는 "목사안수 받을 때의 눈물과 헌신의 다짐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을 높이는 본질에 만족하며 뉴욕을 움켜쥐고 목회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김대진 씨와 박병섭 씨의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유원정 기자〉

KPCA 뉴욕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동북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노회장 최호섭 목사(뉴욕), 유용진 목사(동북)

KPCA 뉴욕지역 2개 노회 봄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지역 2개 노회 봄노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뉴욕노회는 오후 5시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동북노회는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2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이었으나 뉴욕일원의 폭설로 인해 하루 만에 일정을 끝냈다. 한편 해외한장로회 제42회 총회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뉴욕노회

뉴욕노회 제56회 정기노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최호섭 목사 △목사 부노회장: 박맹준 목사 △장로 부노회장: 김종대 장로 △서기: 주영광 목사 △부서기: 이상현 목사 △회록서기: 김천수 목사 △부회록 서기: 조태성 목사 △회계: 정수영 장로 △부회계: 김진성 장로.

회무처리를 통해 △문승진 전도사, 양명철 전도사, 노무홍 전도사의 목사고시 청원건 허락 △ 웨체스터장로교회와 생명의길장로교회의 장로 2인 증선 청원 △뉴욕예일장로교회 장로 3인 장로고시 응시 청원 허락 △미자립교회 지원비 3천 달러 3개 교회에 지원 △뉴욕포도원교회 담임목사 청빙건을 허락하고 임선순 목사에게 은퇴패를 증정했다.

동북노회

동북노회 제28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동북노회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유용진 목사(뉴욕동부교회) △목사 부노회장: 이은희 목사(푸른하늘교회) △장로 부노회장 박영삼 장로(은혜교회) △서기: 임근영 목사(패밀리터치) △부서기: 최성훈 목사(뉴욕한길교회) △회록서기: 박응수 목사(할렐루야교회) △부회록서기: 박천영 목사(국제협력회) △회계: 정연오 장로(뉴욕목양교회) △부회계: 유희종 장로(한성교회).

이날 회의에서는 푸른하늘교회 추영숙 전도사의 목사고시 청원을 처리했으며, 은혜교회 이임우 목사의 부목사 청빙과 장로 2인 고시 청원을 처리했다.

이날 오종민 목사(우리교회)의 노회원 자격 취소와 관련해 노회원들 간의 뜨거운 설전이 오갔으나 노회화합차원에서 선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오종민 목사의 신분 및 자격 처리에 개입하거나 비호할 시 원칙적으로 징계처리하기로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주예수교회 주최 선교적교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노회 제 80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필라델피아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필라노회 새 노회장 박기억 목사

정기노회 임원선출, 부노회장 장덕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필라델피아노회(노회장 최해근 목사)가 3월 15일 오전 10시 영생장로교회 제2성전에서 열렸다.

회장 최해근 목사(몽고메리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된 노회는 제1부 개회예배 및 성찬식, 제2부 회무 처리의 순서로 이어졌다.

개회예배 기도는 정희권 목사(브니엘장로교회 담임)가 했으며, 박기억 목사(멕시코한인연합교회 담임)가 시편 39편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철 목사(예승장로교회 담임)가 성찬식을 집례 했고, 배기현 목사(삼일장로교회)가 성찬식을 위해 기도했다. 김성철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날 공천부의 보고대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기억 목사 △부노회장 장덕상 목사(필라델피아 한인개혁장로교회 담임) △서기 채왕규 목사(뉴비젼교회 담임) △부서기 정희권 목사 △회록서기 백운영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 △부회록서기 김성준 목사(필라델피아사랑의교회 담임) △회계 김요셉 장로(영생장로교회) △부회계 노금수 장로(양의문교회).

〈정리: 유원정 기자〉

롱아일랜드성결교회 김석형 목사 은퇴

후임 이상원 목사 청빙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 김석형 목사가 오는 6월 4일 은퇴한다. 후임에는 이상원 목사가 청빙됐다.

롱아일랜드성결교회는 1984년 김석형 목사가 설립해 33년간 목회해왔다. 김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및 교단 신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후임 이상원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목회신학 전공)을 졸업하고 도미,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벧엘성결교회 협동목사와 퀸즈장로교회 부목사를 거쳐 2013년 7월 코넬베다니성결교회 2대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이상원 목사는 3대 목사 집안으로 최근 은퇴한 서울 신길성결교회 이신웅 목사의 아들이다.

"지역상황에 맞는 성경적 교회 추구"

주예수교회 주최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열었다.

"선교적교회와 목회리더십(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LA, 콜롬비아, 테네시, 뉴저지 및 미시간 등 미 전역과 아프리카 케냐에서 5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첫날 환영만찬 후 시작된 강의에서 이학준 교수(풀러신학대학원)는 "미국사회, 이민목회, 선교적교회"란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파송된 '육신의 영역'(사람,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2세들의 삶의 현장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의 현장이며, 교회는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신혁선 교수(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가 "선교적교회와 사회 복지" 주제의 강의에서 "미주 한인교회는 속해있는 지역마다 독특한 사회적 문제(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들을 감당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명은 신구약 복음의 핵심으로 모든 지상교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병호 목사(아틀란타 베다니장로교회)는 "선교적교회와 이민목회"를 주제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이민목회의 핵심가치로서, 선교하는 교회는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배현찬 목사(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 원장)는 "선교적교회와 목회리더십 실제"란 제목의 강의에서 "선교적교회는 굳건한 성서적 전통을 바탕으로, 상황적인 문화 수용,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할 때 구현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담임목사의 철저한 교회중심목회, 균형 잡힌 신학과 건강한 사회적 책임의식, 윤리적 고결함과 진정성 있는 목회리더십을 구현할 때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체되고, 그 공동체는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적 사명이 균형을 이룬 선교적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사 노승환 장로(심장내과 전문의)는 "선교적교회와 평신도 리더십"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선교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남녀노소, 온 교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선교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는 강사와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토의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현황을 나누고, 선교적교회 구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선 목사(낙스빌한인교회)는 "개인적으로 가졌던 지역교회사역의 한계와 사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신학적 해답을 찾은 계기가 됐다"며 "특히, 독특한 지역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교적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시작된 주예수교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올해 네 번째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주이민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성경적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됐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제23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밤 행사가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라!

제23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제23회 어린이전도협회(CEF 대표 여병현 목사) 후원의 밤이 18일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후원의 밤은 케빈마 선생의 인도로 찬양율동 시간을 가진 후 여병현 목사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여 목사는 "CEF는 1937년 시작됐으며 현재 200여 국가에서 80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1957년에 시작돼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으며 미국은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CEF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 교육하는 사역, 자료공급사역"이라 언급한 후 "교회가 아이들이 없고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다. 큰 교회로 빠져나가 작은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자라나야할 미래 성도가 없다면 이민교회는 1세대로 마치게 될 것이다. 다음세대 어린이 청소년에게 사역집중을 하지 않아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민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서 주님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함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 목사의 사역소개가 마친 후 CEF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특별순서를 가졌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한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풍경사진작가 양희관 집사의 사진인생 30년을 돌아보는 개인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리앤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사진은 18일 오프닝 리셉션에서 테잎커팅하는 장면

양희관 사진전 Impressive Movements #3

30년 사진인생 중간평가... "아름다운 세상 보여줄 것"

풍경사진작가 양희관 집사의 사진인생 30년을 돌아보는 개인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리앤리 갤러리에서 '감동의 순간들 3'(Impressive Moments #3)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양 작가가 그동안 찍었던 풍경사진들을 통해 느꼈던 감동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양 작가는 "사진은 비주얼아트다. 1986년부터 시작된 제 사진인생 30년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작업해온 스스로의 사진 세계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작가로 30년 활동해왔다. 활동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용기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기도가 있었기에 좋은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 LA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던 양 작가는 다음해 5월과 6월 워싱턴 주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그 해 2월 서울 화랑미술제에 출품한 사진작품이 팔리기도 했다.

양 작가는 "이번이 LA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풍경사진 웍샵과 사진여행을 계속하면서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펼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홈페이지 www.betterphototrip.com

▲문의: (213)446-7476

〈박준호 기자〉

미주 한인들의 도전과 성공을 담은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 인재들'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의 인재들" 출판기념회

KCCD 주최, 미주한인 45인 성공기 담아

미주 한인들의 도전과 성공을 담은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 인재들" 출판기념회가 16일 KCCD(회장 임혜빈) 주최로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저자인 현지혜씨 후원자로 나선 홍명기 M&L홍파운데이션 이사장과 홍병식 퍼시픽스테이트 대학교 교수, 그리고 마이클양 Mysimon.com&Becom.com 및 유코드 설립자가 패널로 나서 본인의 삶에 대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현지혜 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재들의 이야기들이 미주사회에 전달돼 미주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나타났으면 한다. 한인폭동을 계기로 미셸스틸 박 OC수퍼바이저 등 많은 분들이 리더로 준비됐다"며 "꿈의 삶은 삶에 대한 열정,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쏟는 정성과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마인드와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에 의해 개척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홍명기 이사장은 3권으로 구성돼있는 이 책 1000세트를 구입한 뒤 도서관과 한글학교 등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이민자들의 잊어버린 꿈 회복"

나침반교회 주최 제1회 행복나눔콘서트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주최 제1회 이웃과 함께하는 봄맞이 행복나눔콘서트가 17일 저녁 7시30분에 열렸다.

민경엽 목사는 "행복나눔콘서트는 이민자들이 잊어버린 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본 교회 공미연 집사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오디언스원(보컬 헌터, 기타 랜디김, 베이스 키김, 드럼 스캇 퍼그마이어), 대금 이병상 목사, 바리톤 권상욱 목사, CCM가수 서소희, 바이올리스트 김진희, 가야금 지윤자, 윤에스더 교수의 피아노연주, 소프라노 어유경과 마리아 델필라, 사물놀이 노리팀이 출연해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 주최 제1회 이웃과 함께하는 봄맞이 행복나눔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정요한 목사 성역 30주년 및 출판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정요한 목사 성역30주년 및 출판감사예배

"정요한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남 사랑 그리고 감사"

정요한 목사 성역30주년 및 그의 저서 "정요한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남 사랑 그리고 감사" 출판감사예배가 19일 오전 11시 정요한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미주베델교회에서 열렸다.

정요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홍성호 목사가 기도했으며 정애자 사모가 찬양을 송정명 목사가 "믿음이 본을 보이는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정요한 목사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몸부림치며 주님께 헌신해왔다. 그리고 신문사를 경영하며 만난 사람들에 대해 출판했다"며 "바울사도의 2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데살로니가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미주베델교회도 데살로니가교회를 바라보고 성장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최선호 목사가 서평을 변영익 목사와 양준호 회장이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홍성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정요한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남 사랑 그리고 감사"는 정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크리스천헤럴드의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박준호 기자〉

나성동산교회 박영천 3대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감리교 목회자 중창단이 박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찬양을 하고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다..."

나성동산교회 박영천 담임목사 취임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탈퇴를 선언한 나성동산교회가 제3대 박영천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지난 3월 12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

박영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범철 목사(나성동지방 전 감리사)의 기도 후에 이천휘 목사(부평제일교회)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셸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를 소개한 뒤 "오늘 취임하는 박영천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희생하며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길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오랜 어려움 끝에 오늘 취임하는 박 목사님을 환영하며 부임한지 1년이 훨씬 넘어 이제야 취임식을 갖게 됐으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고 있다.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한은우 설립목사의 취임선언과 축복 안수기도 후에 교인선서, 전순님 권사(총여선교회 회장)의 취임패 전달, 갈해수 장로의 교회당 열쇠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를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정지강 목사(대한기독교서회 명예사장)와 고희범 권사(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의 권면사가 있었고 배재코랄의 축하공연 후에 강신욱 목사(생수의강교회), 김청배 장로(새찬양교회), 김철기 권사(한국장애인복지신문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감리교목회자 중창단의 찬양 후에 취임사에 나선 박 목사는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는 조동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남가주샬롬교회 김인중 목사 초청 봄 부흥회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는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원로) 초청 봄 부흥회를 '복음으로 부흥하라!'라는 주제로 24일(금)부터 26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저녁 7시30분, 25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6일(주일) 오전 8시, 9시30분, 11시.

▲문의: (310)787-1004

주말씀교회 설립예배

주말씀교회(담임 박승우 목사 2975 Wilshire Bl #330) 설립예배가 26일(주) 오후 2시에 갖는다. 이날 설교는 박광철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595-3927, (213)507-4355

지저스키즈 무료세미나

주일학교 전문교육기관 지저스키즈(대표 임은희)가 주최하는 무료세미나가 25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4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홀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1 S. Brookhurst Rd)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422-0022

LA Lady Singers 초청 선교음악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 643 W. Malvern Avenue)는 '복된 좋은 소식의 노래'라는 주제로 LA Lady Singers(지휘 이종헌 집사) 초청 선교음악회를 4월 2일(주)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714)871-8320

토렌스조은교회 원로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 및 임직식

토렌스조은교회(19950 Mariner Ave)는 고 김바울 목사 원로 추대 및 제2대 담임 김우준 목사 취임식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26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10)370-5500

여름성경학교&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여름성경학교&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4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선교침례교회(담임 고상환 목사),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각각 갖는다.

▲문의: (213)842-9329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님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 Child Care Food Program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설명회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11시
장소:
한인가정상담소
3727 W.6th st. #320,
LA, CA 90020 (하버드+6가)
대상:
LA·OC에서 어린이집/유치원
(Daycare Home/Center)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및 관계자
www.kfamla.org
카카오톡ID: KFAMLA
예약/문의:
213-235-4868, jra@kfamla.org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한인가정상담소, 3월 영양의 달 맞아 유치원체험학습 행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3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고 있다.

3월은 '전국 영양의 달(National Nutrition Month)'이며, 12일부터 18일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 프로그램인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푸드 프로그램)의 홍보주간이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Child Care Food Program·CCF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직원들은 상담소 프로그램 중 하나인 CCFP 홍보주간을 맞아 한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 아이들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2일 어린이집 맘스하트(Mom's Heart)에서 어린이들과 야채·과일을 활용한 아트 클래스를 진행한데 이어 14일에는 유치원 올리브트리(Olive Tree)를 방문, 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올리브트리 학생들은 전국 영양의 달을 맞아 특별 제작된 '파머스 마켓에서(At the Farmers Market)'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으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촉감으로 맞추는 놀이를 했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인가정상담소 고나영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매니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식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편식을 하는 아이들에겐 식재료를 직접 고르거나 같이 요리하는 체험 등이 식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LA나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인들을 위해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0세부터 12세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데이케어 자격증이 있는 애프터스쿨 등의 식재료비를 환급(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으로 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수혜대상이다.

유치원의 경우 환급액에 차이는 있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이 많아도 일정 부분 식재료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자격,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무료며, 사전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235-4868, jra@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목회자·성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레포500 국제포럼 설문조사

"설교 횟수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목회자의 설교 사역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너무 잦은 설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도들의 경우, 목회자의 설교가 출석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국민일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지앤컴리서치와 함께 조사한 교회와 사회개혁을 위한 개신교인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및 성도들의 신앙생활 관련 부분을 들여다봤다.

목회자 2명 중 1명 "예배가 가장 큰 비중"

목회자의 설교사역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설교 횟수가 많다'(3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0년 국민일보가 전국 목회자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주일에 평균 10~20회의 설교를 소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자들은 또 '문화 및 사회의 급변'(25.0%)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 부족'(9.0%) '다른 사역이 많아서'(8.0%) '유명 설교자와의 비교'(4.0%) 등의 순으로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예배·전도·교육·봉사·친교 등 목회의 다섯 가지 주요 분야 가운데 목회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예배(52.5%)였다. 전도와 교육, 봉사, 친교 등이 뒤를 이었다.

목회환경에서 맞닥뜨리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 더딤'(34.0%)이었다. '교인 수 성장 더딤'(21.0%)보다 13%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은 '영혼 구원' 못지않게 '영적 성숙'을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도 4명 중 3명, 주일 낮 예배 출석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다소 떨어졌다. 현재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3.2%였다.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실시한 조사(89.5%) 때보다 6.3%포인트 떨어졌다.

주일 낮 예배 참석 정도에 대해서도 '매주 참석한다'는 응답은 74.9%로 한목협 조사(75.5%)보다 낮았다. '한 달에 2~3번 출석한다'는 응답은 15.7%로 한목협의 2012년 조사(19.9%)보다 4.2%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내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나홀로 신앙인'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좋다'는 응답(2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이 다닌다'(26.9%) '거리가 가깝다'(22.2%) 등의 순이었다. 한목협의 2012년 조사에서는 '거리가 가깝다'(33.0%)는 응답이 최다였다.

개신교 신자이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은 이유도 다양했다.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27.3%)이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21.9%)가 뒤를 이었다. 5년 전 한목협 조사(각각 19.6%, 15.8%)보다 수치가 부쩍 높아진 것은 목회자의 비윤리적 스캔들이 몇 차례 불거진 데다 현대인의 일상이 더욱 바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개혁 500주년, '모두 하나되길'

부활절 맞아 교회와 거리마다 말씀이 펄럭!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다.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뜻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부활절에는 한국교회와 거리 곳곳에 말씀 깃발이 펄럭일 예정이다. 2014년부터 부활절과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해 깃발에 캘리그래피로 적은 작품들을 벽면, 가로등, 나무 등에 전시하고 있는 청현재이캘리그라피문화선교회(회장 임동규)가 올해도 말씀깃발을 전국 각지에 세운다.

임동규 회장은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말씀깃발전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초기엔 신학대 캠퍼스에만 제한적으로 깃발이 걸렸지만 지난해부턴 도로 위 가로등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말씀깃발전은 3회였던 2015년 부활절까지는 주요 신학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같은해 가을 열린 4회부터는 전시공간과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 신학대 캠퍼스를 넘어 전국교회, 미션스쿨, 기독교단체 건물 외벽에 깃발이 걸렸다. 청현재이문화선교회가 직접 말씀깃발을 설치하던 것에서 참여를 원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말씀깃발을 전시하는 범기독교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월 진행된 5회 말씀깃발전에선 공모전 방식을 처음 시도해 캘리그래피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의 도로 가로등에 말씀깃발을 게시해 '거리를 걸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길'로 주목을 받았다.

임 회장은 "6회째를 맞은 올해도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합정역과 양화진 일대의 도로에 말씀깃발이 휘날릴 것"이라며 "성도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말씀깃발을 바라보는 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씀깃발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와 성경구절이다. 참여를 원하는 신학교와 교회는 청현재이 홈페이지(cjcm.co.kr)에서 말씀깃발 이미지를 내려받아 각자 현수막 업체를 통해 인쇄한 뒤 게시하면 된다. 시·군·구 교회연합회의 경우 먼저 지자체 협조공문을 통해 설치허가를 받은 뒤 준비해야 한다. 이미지는 '부활 메시지'와 '부활 말씀'으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114개의 이미지가 업로드 돼 있다. 다운로드 및 사용 비용은 무료다.

명성교회공동의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교인 70%대 찬성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도 결정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19일 저녁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8,104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물었다. 개표 결과 합병건은 찬성 5,860표, 반대 2,128표, 기권 116표로 가결됐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도 찬성 6,003표, 반대 1,964표, 기권 137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합병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새노래명성교회의 행정정차만 남겨놓게 됐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청빙위원장은 "청빙위원과 당회원들은 후임목사와 관련해 1년4개월 동안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명성교회 신앙공동체의 장기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따라 교인들의 총의를 물어 김하나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명성교회는 일부의 우려를 최대한 수렴해 더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거듭 나겠다"면서 "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와 총회,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섬김 사역을 더욱 확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앞서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합병 및 청빙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성도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김 원로목사는 "김하나 목사와 의논한 일이 없다.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치 않았고 교회(당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오늘 기도하고 공동의회에 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새벽기도회 설교에선 "당회에 어떤 주문도 하지 않았다. 청빙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다. 후임 담임목사는 청빙위가 결정한대로 따르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로목사는 에티오피아에서 성회를 인도하러 출국했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17일 급거 귀국했다.

공은 새노래명성교회로 넘어갔다. 당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새노래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곧바로 안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편법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목사가 19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합병과 청빙, 공동의회 개최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와 합병 반대"

김하나(하남 새노래명성교회) 목사가 19일 아버지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립한 서울 명성교회와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그럼에도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하나 목사의 입장 표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하나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명성교회와 합병하거나 명성교회 후임목사가 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에 필요한 공동의회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교계, 공명선거활동 시동

기윤실, 등 9개 기독시민단체 '공선넷' 출범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교계의 공명선거활동도 본격 시작됐다. 교계는 특히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페이크뉴스(가짜뉴스)'를 집중 감시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공의정치포럼, 성서한국 등 9개 기독교시민단체가 함께 꾸린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공선넷)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 대선 공명선거활동 출범'을 선포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공선넷 고문은 "오늘은 공교롭게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해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된 지 57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펼치는 공명선거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선넷이 올해 펼치는 활동은 예년에 비해 전문적이고 다양해졌다. 예년과 달리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진 만큼 팩트체크(사실여부 확인)의 비중을 높였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언비어 내지는 사실과 다른 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의정치포럼 윤은주 사무총장은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가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고발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아울러 개표와 집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참관·감시하는 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선넷은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2000여명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키로 했다.

지난달 출범한 '2017 정의평화기독교대선운동'(기독교대선운동)도 이날 낮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향한 공명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기독교대선운동은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선동하는 설교하지 않기' '유언비어 설교하지 않기' '가짜뉴스 퍼 나르지 않기' 등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대선운동 윤인중 공동집행위원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불법 선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종교탄압 실태 고발한 자료집 발간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 "북한은 종교인의 무덤"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사진)가 최근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와 종교의 자유 선전의 허구성을 고발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의 종교 실상'(The Realities of Religious Oppression in North Korea)이란 제목의 이 자료집은 20쪽 분량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다.

북한 정권의 종교박해 실태와 선교사 납치·암살 등 반(反) 인도적인 범죄를 탈북민 증언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설명했다.

저자 정베드로 대표는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을 촉발한 평양대부흥운동 11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종교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평양이 왜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종교인의 무덤으로 전락했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한반도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110년 만에 되돌아본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전락해 있다.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자행된 무자비한 종교인 처형, 정치범 몰이, 재산몰수 등은 오늘날 북한에서 종교활동의 씨를 말려버렸다. 이 때문에 북한의 종교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하로 숨어야 했다.

이 책은 이러한 참혹한 인권현장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이후 북한의 종교탄압이 더욱 가혹해졌고 외국 선교사까지 살해하거나 유인 납북 후 강제 억류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 책은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가혹하게 종교인 대상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다른 일체의 종교 활동은 미신이나 아편 취급하는 북한정권을 이 책은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3년전 '북한당국의 사상·종교의 자유 통제실태'를 명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북한의 종교탄압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법정에서 단죄해 인권유린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치자를 유일신처럼 숭배토록 강요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료를 발간했다"고 했다.

북한정의연대는 각국 시민단체 및 의회, 인권 NGO 등에 이 책자를 배포해 북한정권의 조직적 종교박해로부터 북한 지하 종교인을 구명해 내야한다는 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포럼 및 강연을 통해 탄압받는 북한 종교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오랜 분쟁 딛고 장로 선출 사랑의교회 당회 정상화 시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9일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7인을 선출했다. 사랑의교회가 신임 장로를 선출한 것은 2012년 11월 28일 이후 4년 4개월여 만이다. 공동의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장로들을 선출함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사역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오정현 목사의 반대파 신도들이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 정관과 장로 선임절차 등에 따르면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면서 "교회는 지난달 26일 임시당회에서 치리장로 27명과 당회원 복직서를 제출한 백모씨가 출석해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모씨가 교회 치리장로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치리장로의 3분의 2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가처분기각을 통해 정상적인 당회 구성의 길이 열리고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사랑의교회는 반대파인 갱신위원회 측 신도들과 갈등을 빚으며 정상적으로 당회를 운영하지 못했다. 당회의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재산처분 및 사역 관련 의결' '교역자 선출' '교인 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요소다. 장로들의 정년 은퇴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신임 장로를 세우지 못해 사역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당회 정상화를 통해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왔던 분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제 당회원을 새롭게 세워 사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권모씨는 이에 대해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전략을 갖고 있다"며 정식 재판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예장합동 등 일부 교단 사순절 안지켜

사순절과 부활절 숨은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순절이 3주째를 넘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기간, 많은 교인들이 기도와 묵상을 하며 경건한 일상을 살아간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매년 맞이하는 교회절기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이야기들이 있다.

사순절 없는 교단?=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1999년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사순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뒤 사순절을 없앴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사순절이 교회의 절기가 아니고 천주교와 성공회의 고정된 절기인 만큼 성경적 절기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장합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본 취지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이상원 총신대(조직신학) 교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절기이고 로마가톨릭에서 차용한 만큼 굳이 사순절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신 부활주일 7일 전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예장고신도 사순절을 특별한 교회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고 지역교회의 상황에 따라 고난주간 등을 지키는 경우다.

둘로 나뉜 부활절=그레고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만든 역법이다. 1년을 365.25일로 보는 율리우스력은 태양년(太陽年)의 1년(365.24일)보다 매년 11분가량 길어진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128년마다 하루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런 차이는 16세기에 이르러 천문학적 춘분과 달력의 춘분 사이에 열흘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차이를 수정하기 위해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정해 열흘의 편차를 줄이고 이를 그레고리력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동서교회 분열 이후 로마 가톨릭과 긴장 관계에 있던 정교회가 새로운 역법을 거부하고 율리우스력을 고수하면서 두 개의 부활절이 생긴 것이다.

다만 올해는 개신교회와 정교회의 부활절이 4월 16일로 같다. 한국정교회 임종훈 신부는 "역법의 차이로 부활절이 다르지만 종종 날짜가 겹치기도 한다"면서 "정교회는 부활주일 전날 밤부터 철야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고 소개했다.

부활절은 왜 매년 바뀌나=지난해 부활주일은 3월 27일이었고 올해는 4월 16일이다. 이처럼 부활주일은 매년 바뀐다. 부활절이 정해진 건 325년 니케아공의회 때였다. 당시 공의회에서는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참회와 금욕생활을 하도록 결정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간이 사순절로 굳어졌다. 공의회에선 또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직후 주일을 부활주일로 결정했다. 부활주일이 매년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도소 선교칼럼 (18)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영적인 자유함을 받은 사람

교도소는 특별히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영적 회복도 많이 일어나는 영적 트라우마 센터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데 그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공격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영적인 공격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날 때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마귀를 피하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실제의 삶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공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노하며 힘겹게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 역시 마귀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겠으나 그러한 경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를 용서해야만 영적인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그에게 짓밟히고 상처받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위험하게, 나를 병들게 하는 환경에 계속 머물며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이 나에게 죄짓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해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때 쉽게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실감이나 마음의 깊은 충격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영적인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사탄숭배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마귀의 소굴일 때, 예를 들어, 술과 마약으로 죄 속에 빠져서 부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나 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공격을 더 받는 곳이 있다면 그중 한 곳은 교도소일 것입니다. 물론 교도소밖은 자유가 더 많으므로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죄 지을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교도소가 마귀의 소굴과 같은 장소일까요? 그것은 교도소의 많은 재소자들이 술과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 또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사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밀집해있기에 교도소 또한 마귀의 소굴과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교도소에 감금된 사람들은 세상 밖의 일반인들과 달리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누구와 같은 방을 쓰게 될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재소자들은 감방을 배정받으면 무조건 그곳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다른 재소자와 함께 24시간을 생활해야 합니다. 교도소에는 죄 가운데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 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영적인 공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오면 영적인 공격에 많이 시달립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악령이 주는 육체적, 영적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교도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가 1,000명 가량 되는 교도소 전임목사로서 남, 여 재소자들의 예배를 매주 8번씩 인도하고 있으며 여자 재소자들의 감방 안에서는 기도모임을 인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귀의 공격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참석한 사람 중에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귀가 예배시간에 저에게 덤벼듭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머리위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18-19절을 읽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더 이상 저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특별히 누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럴 때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날마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며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18-19절은 제가 영적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재소자들에게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성경구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살면 영적인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19-19절을 통해서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귀에게 짓눌려 고통 속에서 살던 한 재소자가 성경 말씀을 의지하므로 영적 자유함을 얻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에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올 때마다 그 재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므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와도 바로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전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알기에 그 소식에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짓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중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찾아내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때까지 누가복음 4:18-19절을 읽고 또 읽고 외우며 묵상을 하십시오. 그 성경구절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말씀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영적 자유를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yonghui.mcdonald@gmail.com

인/터/뷰

제5회 미주 '십자가의 길' 영성훈련

미주십자가영성원 주최 4월 2-3일 15명 제한

제5회 미주 십자가의길 스텝들

제5회 미주 십자가의 길 영성훈련이 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실시된다.

미주십자가영성원(원장 이명수 목사) 주최로 열리는 훈련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 및 사모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장소는 비전하우스(32949 Oracle Hills Rd, Palndale, CA).

가의 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명을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번째로 접어든 십자가의 길 영성훈련은 참석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5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무게, 영적인 무게로 다가온다"

이명수 목사는 "한국에서 십자가의 길 강사로 초청받았던 적이 있었다. 집회 후에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려야 했다. 너무 힘들어서 놓고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 자신이 졌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무거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로마병사들의 채찍질을 견뎌야 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니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힘든 것일까? 예수님은 더 무거운 것을 지고 가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말했다.

또한 "십자가를 지면서 목회를 생각했다. 이민목회가 힘들다고 한다. 정말로 힘들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목회의 힘듦보다 더한 것이다. 주님께서 기꺼이 지셨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십자가의 길 총괄진행을 맡은 백동훈 목사는 "이민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들이 많다. 특별히 이분들이 십자

영성훈련프로그램의 극대화를 위해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행사진행요원들이 18명 정도 참석하게 되는데 전부 십자가의 길 영성훈련을 통해 사역의 초심을 되찾은 자들이다.

노명구 목사(남가주하나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시간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적막함이 느껴지고 무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전해지는 감동이 있다"며 "고난이 심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십자가의 무게는 단지 십자가만의 무게가 아닌 영적인 무게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십자가의길 스텝 최경일 목사(미주하나님의은혜교회)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들의 사명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목사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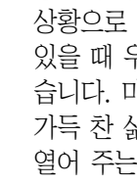
이명수 목사는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 생각이 바르게 되고 가치관 새로워지고 잘못된 방향이 바뀌지고 사명 회복되는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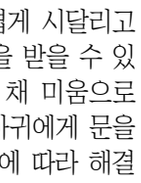
▲문의: (213)675-8291, (323)667-9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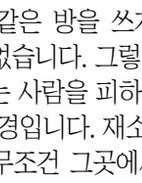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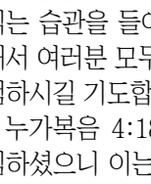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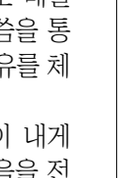
동부(NY,NJ)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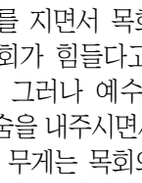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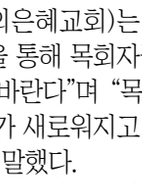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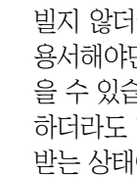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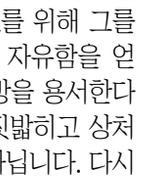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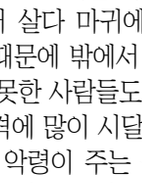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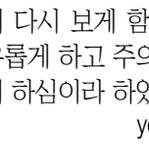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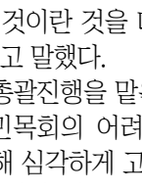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퀸즈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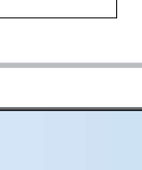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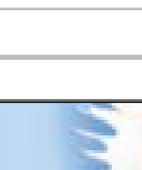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샬롬의 교육학(17)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육의 성공은 헌신적인 교사에 달려 있다

교사=미러클 워커

빛의 천사, 3중장애의 고통을 이긴 헬렌 켈러(1880-1968)를 아는가? 태어난 뒤 19개월 만에 성홍열과 뇌막염으로 평생을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앤 설리반 역시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알코올중독자이며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 결핵을 앓던 어머니가 죽게 되자 남동생과 그녀는 한 주립병원에 보내져 남동생은 거기서 죽고 그녀 역시 눈병에 걸려 실명의 위기까지 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녔던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1887년 헬렌 켈러의 교사로 위촉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 헬렌을 만난 순간부터 교육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망나니짓을 하였던 헬렌, 그러나 앤 선생님은 마음과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마침내 헬렌은 마음을 열게 된다. 앤은 헬렌에게 손바닥 위에 알파벳을 적는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작하였다. 1887년 4월 5일, 앤 선생님은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한 후 헬렌의 손을 물에 적셔 주었다. 그리고 헬렌의 손바닥을 펴서 water라고 적어주었다. 이때의 감격을 헬런 켈러는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원한 물줄기가 펌프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녀(앤 설리번)는 내 손에 물(w-a-t-e-r)이라고 써 주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다음에는 빨리...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나의 모든 관심은 그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뭔가 모를 황홀감에 휩싸인 듯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이 새롭게 기억이 되는 양 그 단어의 비밀이 내마음속으로 입력된 듯 했다. 나는 그때 물(water)이라는 하는 차갑고 아름다운 액체가 내 손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을 깨웠고 나에게 빛이 되었으며 기쁨을 주었고 나를 해방시켰다. 물론 아직도 나에게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장벽은 시간이 되면 바로 곧 다 없어져 버릴 것이 확실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교육은 무지로부터 해방이며,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와 달란트를 계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영국 당시 빅토리아 여왕에게 훈장을 받을 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도록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한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을 사람들은 기적은 만드는 사람(miracle worker)이라고 불렀다. 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발견하며, 아이들에게 영생과 비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 누구인가?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

교사의 자질

필자가 대학에서 교사교육학을 공부할 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고 이제는 미국 대학에서 교사 교육학을 10년이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필자가 공부할 당시와 지금은 교사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다름을 느낀다. 필자가 공부할 때는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라고 배웠다. 맞는 말이다.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음악 교사는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라면 성경 지식에 차고 넘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필자는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 전문지식이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러면 전문지식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말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책을 내려놓고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 가보자. 그때 가장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명을 떠올려 보자.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 내가 잘못 나갈 때 나를 타일러 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교훈해 주셨던 선생님, 혹은 내가 공부에 뒷전일 때 나의 무지를 타일러 주시고 다시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신 스승님! 그런 특별한 선생님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으며, 비전과 꿈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분들의 전문지식 때문에? 그분이 수업시간에 나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혹은 시험준비를 잘 하도록 도움을 줌으로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선생님들이 가진 자질은 학습지식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오해 마시라. 학습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동기, 학생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태도,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이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등이 더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학에서는 교사 자질(dispositions), 헌신(commitment),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자질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레이리(1998)는 교사가 지녀야 할 필수불가결한 자질로 겸손, 학습자를 사랑할 것, 용기, 인내, 과감성, 안정성, 지혜, 과묵한 표현 등을 꼽고 있다.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자질과 성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항목이 자질 검사(disposition assessment) 이다. 통상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1)도덕적/기독교적 가치 2)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 3)생애를 거쳐 학습자로서의 자세.

첫째 항목은 교사가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교실 안팎에서 이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 가르칠 때 혹은 멘토링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개개인의 신체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성숙도는 어떠한가? 등을 평가한다.

둘째, 각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 환경,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 뿐 아니라 부모님,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고 함께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늘 열린 자세와 학습자의 자세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 연구에 게으르지 않고 늘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기대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은 과정 기간 동안 계속 평가를 받게 된다. 과목을 이수할 때마다 학생들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기준을 얻지 못하면 그 학생과 만나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일정 기간동안 실천하게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다시 평가하고 이때 결과가 미흡하면 그 학생은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된다. 왜 자질 검사가 이리 중요할까? 결국 교육(특히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데 이는 교사의 지식을 통한 변화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얘기한 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결국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고전8:1).

교회에서 교사를 모집할 때, 기준, 준거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지식? 혹은 교사로서 특정한 과정을 이수하였는가 여부? 혹은 가르침의 경험의 유무? 물론 이러한 기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로서의 자질이다. 당장 교사가 부족하다고 자질이 없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자질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필자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다.

교사가 계속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영역

그러면 유능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가? 유능한 크리스천 교사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세 가지 영역이란 커리큘럼, 교사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내적 세계관이다.

첫째, 가르치고자 하는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성경의 원칙과 기독교 교육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사는 부지런히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교육 현장에 접목시켜야 하고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을 반영하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환경을 배려하는 교육, 진리를 위하여 꾸준히 토론하고 발전시키는 학습과정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참여 학습, 브레인스토밍, 다문화 교육, 팀웍, 프로젝트, 문제해결의 교육방법론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능력과 달란트를 꾸준히 개발하는 학습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늘 교실에서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개념 하나가 있다. 그것은 HWJT(How Would Jesus Teach: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개념인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필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개념, 주제, 학습 활동 등)을 가르치신다면 어떻게 필자와 다르게 가르치실까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창의적이고 독창적, 성공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 필자의 교수 방법론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둘째, 크리스천 교사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부단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주님과 계속 연계되고 있는가? 나의 교실 안팎의 삶에서 주님과 부단히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성격, 매너, 언어습관, 교실내 외에서의 활동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가르침의 시간 전 후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학생들과 교실 안팎에서 계속 접촉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사로 부르기보다는 목자라고 불려야 함이 합당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자는 양들의 목소리를 듣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보호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요10장).

마지막으로 교사 개개인의 기독교 세계관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덕, 지혜의 근원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교육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부여해준 가치, 지식, 능력을 총체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는가? 아이들 각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교육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숭고하고도 역동적인 과정임을 알고 있는가? 교육을 통하여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죄와 불의에 빠진 인간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전력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교사들은 매일 매일 해야만 할 것이다.

해답은 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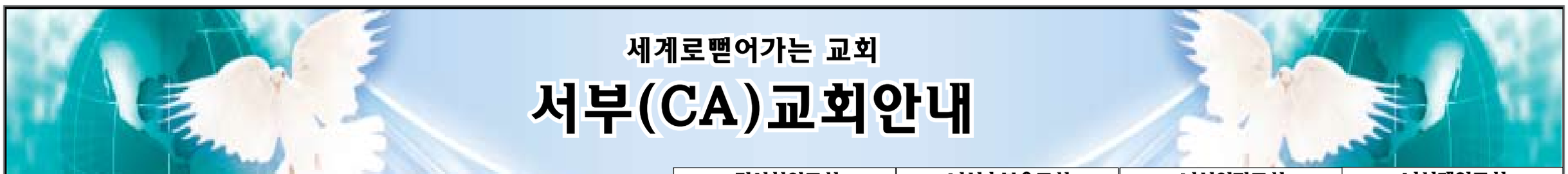
그렇다. 결국은 교사의 문제이다.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믿음으로 충만한 교사가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를 양성해 낸다. 모든 교회가 자질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 교육은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hlee0414@gmail.com

교사는 학생의 잠재 가치를 발견하고 영생과 비전으로 인도

교사자질 평가: 1)도덕적/기독교적 가치 2)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 3)생애를 걸친 학습자로서의 자세

커리큘럼, 교사의 삶 스타일, 내적 세계관 점검은 계속돼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I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3. 육신적·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기 쉽다

첫째, 목회 사역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기 쉽다.

둘째,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피곤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자기 가족의 문제만 고민하면 되지만 사모는 남편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의 문제도 함께 져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피곤하다.

셋째, 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넷째, 시어머니 역할과 시누이 노릇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 늘 사모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많으며 사모는 평범한 여자인데도 특별한 여자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모를 피곤하게 만든다.

어느 사모가 새로운 부임지에 갔는데 "사모님, 피아노 칠 줄 아세요? 1종 운전면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6)

이희숙 사모

허증 따셨어요?" 하고 물어와서 "아니요" 했더니 "그러면 뭘 믿고 사모가 되셨어요?" 하더란다.

그래서 그 사모는 "사모가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것 외에 피아노를 치는 것이 기본이고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가 있거나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갖춰야만 사모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4.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목회자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난다.

아무리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하는 양떼들이라고 해도 여건만 조성되면 이리떼같이 돌변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며 상처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냉혹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 사모는 억울하게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오해도 많이 받는다. 욕도 많이 먹는다.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는다. 때로는 남편의 실수한 것에 대한 원망도 받는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을 당했을 때 상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의 행실에 대한 비난까지도 사모의 몫으로 받아야 한다. 지나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부교역자들이나 여전도사들은 물론 당회원들이나 권사님들과 충돌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 사모들이 교회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대신 이토록 고통과 아픈 상처를 받는 것일까?

1)목회자의 아내 자신의 미성숙한 신앙인격의 결함에서 온다

아무리 이리같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사모를 물어뜯는 경우는 흔치않다. 사모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 생활에 있어 범사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거듭하라. 그것이 거룩한 목회자의 아내로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바울과 같은 대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했다.

2) 성급하게 사모 자신의 판단을 표시해 버릴 때

의외로 많은 사모들이 인정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교회 안팎의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하기 위해 찾아온 교인들에게 너무 동정적이거나 사모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때로는 적을 만들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적인 결정사항이나 교인들끼리 다투는 관계에는 쉽게 나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3) 사모에게도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따른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모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여 승리해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

4) 교인들이 목사님 대신 사모에게 원망, 불평한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를 원망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주의 종은 절대 대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목사님 대신에 목회자 아내인 사모에게 화를 내며 덤벼들기 쉽다. 그러므로 사모는 오해나 비판은 못들은 척하고 여유 있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배신을 당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

▪상담케이스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한인 선교사 수련회에 가서 사모학을 강의하면서 선교사 사모님들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어느 사모님은 남편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공사를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현지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목사님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자주 연습에 빠지므로 한번은 사모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만일 사전 연락 없이 3번 찬양 연습에 결석하면 찬양대에서 제적할 것이다"라고 광고 중에 발표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대국의 나라다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러시아 사람이다. 당신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이 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누구더라 찬양대에서 제적을 시킨다고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쳐서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현지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 사모님이 울면서 "그래도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며 부탁해서 우리는 함께 울며 그와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주심에 감사드렸다.

hslee39@sbcglobal.net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를 원망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주의 종은 절대 대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목사님 대신에 목회자 아내인 사모에게 화를 내며 덤벼들기 쉽다. 그러므로 사모는 오해나 비판은 못들은 척하고 여유 있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생명 안에서 누리는 왕권(롬4:15-17)찬431장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까?

첫째, 한 사람의 범죄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15).

둘째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처리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인정해야합니다(16).

셋째, 나아가 그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인정함으로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17). 은혜 받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됨을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늘 영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즐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화 한 사람의 순종(롬5:18-21)찬98장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 한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자기 백성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19). 이것은 대속적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뱀을 놋뱀으로, 한 여인 하와의 범죄를 여인의 후손의 순종으로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둘째, 율법을 주심도 죄를 더 분명히 들어내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20). 죄를 깨달았을 때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가 왕노릇하던 것이 의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 변화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만을 전합시다.

수 세례의 의미(롬6:1-3)찬147장

구원을 적용하는 일에 세례를 받게 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죽인 것을 믿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나의 죄가 장사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살아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곧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목 순종의 종(롬6:15-18)찬387장

구원생활의 실재를 설명한 사도는 죄를 대적함으로 우리로 의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첫째, 죄의 종이란?(17) 새사람이 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다시 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바른 태도의 도전을 수시로 받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처리된 죄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남겨둔 것처럼 죄로 이끄는 부패성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연단시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둘째, 순종의 종이란?(16) 교훈의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한 자가 됩시다.

금 거룩함에 이르는 삶(롬6:19-21)찬499장

사도는 실질적인 거룩에 나가는 삶이 어떠함을 또 설명합니다. 첫째,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16).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계속 육신을 따르면 결코 그 거룩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절로 되지 않고 오직 영적 새로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둘째,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의되신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거룩을 이룹니다. 죄에게 드렸던 지체가 의에게 바쳐짐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셋째, 우리의 헌신이 그 열매를 결정합니다(19-21). 자신을 불법, 불의, 부정에 바침으로 어두움과 수치를 나타낸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바칠 때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의 길은 헌신에 따라 좌우됩니다.

토 주 안에 있는 영생(롬6:22-23)찬493장

한 죄인이 영생을 받기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죄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로 시작합니다(22).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연합해 어두움에 살던 자가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한 증거들을 갖습니다. 셋째,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미 믿을 때 얻은 영생은 하나님을 앎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즐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임마누엘의 실재를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합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기도로 맞서 싸워야...교인 병들고 떠나게 해

Thomrainer.com, 교회내 '갑질' 하는 사람들의 횡포 예방 및 대안 권면

한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갑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고위 정치인들이나 재벌가 직계 자녀들의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들의 갑질은 끝이 없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서슴없이 갑질을 하는 걸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사람과 사회를 향한 '무책임이냐' 또는 '무한책임이냐'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은 대부분 돈과 명예, 그리고 술에 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는 갑질이 없을까? 언뜻 보면 없는 것 같으나 실은 교인들 간에도 갑질이 존재한다. 갑질하는 교인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파장은 크다. 그리고 그 나쁜 영향력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며 이단들이 득세하는 데 힘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교회 역시 '갑질하는 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단지 '갑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포'를 서슴지 않고 부리는 교인들이 있다. 탐 라이너(Thom Rainer) 목사는 이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거나 예방하는 지혜를 전해준다(9 Ways to Deal With Church Bullies).

기준 높은 교회, 질서 있는 교회로...횡포 묵인 말고 맞서야
교회 행정관리조직이 그들 영향력 행사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선된 자들이 교회리더로 세워지도록 건강한 방법 시스템 갖춰야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신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떠나거나 아예 타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여럿이 있다.

실례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 열심히 봉사하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 한다"며 갑질을 한다. 전도는 하지 않고 도리어 전도돼온 교인을 내쫓는 것이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섬기는 사역에 힘쓰는 교인에게 "너무 열심 내지 마. 임직투표 의식하는 게 눈에 보여" 하면서 갑질을 하기도 한다.

교회 내에도 영화관처럼 지정석이 있는지 "일어나세요. 이 자리는 오랫동안 내 자리였는데 감히"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나와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며 회의 때 발언을 독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거의 성경 수준으로 여기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도 있다.

교회 내 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책임 있는 언행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희망 없어 보이는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기 않고 무한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무한책임의 증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죽으심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한두 명쯤은 존재하는 횡포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횡포는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래 언급한 9가지 제안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기도로 그들의 횡포에 맞서 싸워라.

갑질을 하는 그들의 가장 1순위 공격대상은 보통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원들이다. 직무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 사역원, 직원들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매일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내가 목사로 섬겼던 두 개의 교회에는 최소 100명에 가까운 교직자들이 모여 나를 위해 매일 기도했었다. 점심시간 하루 1-2분가량의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그들의 중보는 간결했지만 매우 강력했다.

2.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을 실천할 그룹을 만들어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불만과 원성을 다뤘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행해보기를 제안한다. 음식 배분에서 소외됐던 과부들을 특별하게 섬기고 보살피도록 별도로 꾸려진 팀이 있었다. 그렇게 임명된 7명은 목회 뿐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주력했다. 모든 교회에는 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갈등과 불만, 불화 등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그룹이 필요하다.

3. 기준이 높은 교회가 되라.

나는 이미 기준이 높은 교회와 낮은 교회에 대해 여러 번 서술한 바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기준이 높은 교회들이 더 높은 결속력, 즉 연합이 더 잘 되고 성경적 가르침과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지상명령에 대한 교회의 소명에도 더 열심을 보인다. 쉽게 말하면 기준이 높은 교회에선 특정 성도가 횡포를 부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4. 교회의 성도들에게 횡포자들과 맞서 이야기하고 물러서지 말 것을 당부하라.

다수의 성도가 두려움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들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진다.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은 교회 내 강력한 그룹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직면하게 될 때 잠잠해진다. 교회에서 선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다.

5. 교회의 행정 및 관리조직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교회들이 애매한 구조와 책무방침을 갖고 있다. 행정조직 또한 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횡포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그들의 부정한 의도를 위해 교회의 행정규정과 조직을 남용하기도 한다.

6. 교회 내 질서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의 질서(권징)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잊혀지고 있다. 횡포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한다.

7. 높은 기준 하에 엄선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방법과 시스템을 갖춰라.

횡포자들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 그들을 조정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추진하곤 한다. 주요 리더십 위치에 바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영적 및 전략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8. 교회의 교직자를 채용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예를 들면 목회자의 강력한 지지 없이 교회의 중요한 스텝을 뽑는 것은 큰 실수다. 만약 목회자와 새로운 직원 간에 소통과 긍정적인 화학반응이 없다면 이 틈을 노려 그들은 횡포를 부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직원과 목회자들 간의 연합된 모습은 교회의 횡포자들에게 큰 장애물일 것이다.

9. 교회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칙칙하고 분열된 교회가 그들의 주요 먹잇감이라는 걸 잊지 말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구글, 세계 여성 13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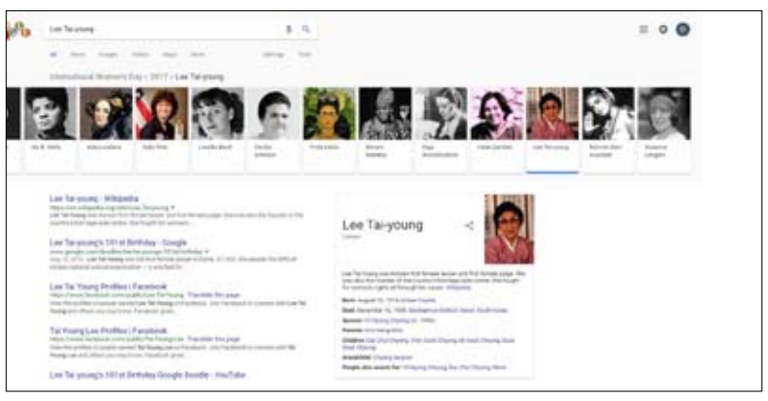
한인가정상담소 창립, 초석 다진 이태영 변호사 포함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를 설립에 초석을 다진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박사가 8일 구글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작한 기념 로고(두들)에 등장했다.

구글은 기념일이나 행사, 인물의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 로고가 있는 자리에 특별히 제작한 그림을 게재하고 있다. 구글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13명을 선정했다.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이태영(1914-1998) 변호사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소개됐다. 1914년생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최초의 여자 졸업생이었으며, 1956년 한국에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 이 변호사는 LA 방문 당시 남가주 한인 여성지도자들을 독려, 상담소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83년 이 변호사와 뜻을 같이하는 이민 1세 여성들과 힘을 모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LA지부를 설립했다.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구글, 세계 여성 13인 소개된 이태영 변호사

이후 1994년 현재의 한인가정상담소로 이름을 바꿨으며, 이태영 변호사를 포함한 초기 설립자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 연간 7천여 명의 한인 여성과 어린이, 한인 이민가정을 돕는 일을 이어오고 있다.

카니정조 소장은 "오늘의 한인가정상담소가 있을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해주신 이태영 변호사님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날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창립 이사님들로부터 이 변호사님이 전하신 말씀과 창립정신을 익히 들어왔다. 모두들 이민사회 외롭고 힘든 이들, 고통 받는 한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심리상담과 교육, 위탁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한인들을 돕는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가정상담소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389-6755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